

#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

[짧은 말씀 묵상집 (7)]

제임스 김 목사 나눔

## “아골 골짜기”

"아골 골짜기"(수 7:24, 26),  
그 의미는 괴로움의 골짜기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여리고 성에서는 승리했지만  
그 다음 성인 아이 성에서는 전쟁에서 패하므로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 원인은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리고 성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야 했는데(6:17)  
온전히 바친 물건을 "탐내어"(7:21) 그것을 가져가고 도둑질하여 속이고 그것을  
자기 소유물 가운데 숨겨두었기 때문입니다(11 절).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것이요(11 절)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범죄한 것입니다(1, 11 절).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6:18)  
아간이 "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 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이백 세겔과  
그 무게가 오십 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쳐가 숨기므로 말미암아(7:21)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지 않으셨고(12 절)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12, 13 절)  
아이 사람들에게 전쟁에서 패하여(4-5 절)  
마음이 놀아 물 같이 되었고(5 절) 괴로움을 당한 것입니다(25 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12 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네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13 절).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아간(15, 18 절)과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24 절)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르 크게 쌓았"습니다(25-26 절).  
그리했을 때에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쳤습니다(26 절).

"아골 골짜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새찬송가 323 장, "부름 받아 나선 이 몸", 2 절)

## 아낌없이 준다는 것은 ...

아낌없이 준다는 것은  
내가 아무리 아끼는 것이었다 할지라도  
더 이상 아끼는 마음이 없이  
반드시 상대방에게 주는 것입니다  
(신 15:10).

하나님께서서는 아끼시는 독생자 예수님을  
더 이상 아끼는 마음이 없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롬 8:32).  
그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아끼십니다.

## 아내가 불평을 할 때에 ...

아내가 불평을 할 때에  
주로 남편의 반응은 또 불평을 한다는 생각 속에서  
아내의 불평의 소리를 듣기 싫어합니다.  
논리적인 입장에서 생각할 때에  
내 아내가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우리 남편들은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데도 또 불평한다'고  
아내에게 짜증 뿐만 아니라 화까지 내기도 합니다.  
무엇을 더 어떻게 하라고 저리 불평하는지  
낙심까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들이 아내의 불평의 소리를 듣지 않고  
외면하다보면 아내의 마음에는 불만족이 더욱더 쌓이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남편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남편들이여!  
아내의 원망의 소리도 들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출 16:9, 12).

그리고 우리 남편들은 아내의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통해  
아내의 마음의 불만족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여  
아내로 하여금 주님 안에서 만족감을 느끼며 누리도록  
해야 합니다 (참고: 12 절 ff.).

## “아니오”와 “예”를 분명히 해야 ...

NO 탐심, YES 열심 (행 20:33-34).

## 아름다우므로

아름다우므로

마음이 교만해지는 것을 매우 경계해야 합니다(참고: 겔 28:17).

## 아무 것도 아닌데 ...

우리는 우리가 뭔가 된 줄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 것도 아닙니다(고전 3:7).

## 아무 공의가 없는 자이기에

아무리 누군가 나를 모함하여

내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이

나를 오해하고 나에게 뭐라 말씀을 한다 할찌라도

그 분이 나 같이 아무 공의가 없는 부족한 죄인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큰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나는 그 분에게 아무 할말이 없이

그 분의 처분대로 따라야 한다

(참고: 삼하 19:24-30).

##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교만한 마음으로(사 16:6) ...

피곤하도록 봉사하는 것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12 절).

성전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이 없습니다(12 절).

자랑하는 것 헛됩니다(6 절).

주님께서는 교만한 마음에서 나오는

즐거움과 기쁨의 소리를 그치게 하십니다(10 절).

그리고 주님은 그 즐거움과 기쁨을 돌이켜

슬픔과 근심(7 절)과 눈물과 울음으로(9 절) 바꾸십니다.”

## 아무 유익이 없는데 ...

아무 유익이 없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목숨을 돈과 바꾸고 있습니다

(막 8:36-37).

## 아버지 다윗

오늘 아버지 주일을 맞이하여 역대상 28 장 9-10 절 중심으로  
아버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아버지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떠한 삶의 본을 보여 줘야 하는지  
한 3 가지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아버지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라’고 말했습니다(9 절).

다윗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지식을 아들 솔로몬에게 전승시키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 지식은 바로 ‘나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하나님께 형통의 복을 받길 원했습니다(왕상 2:3).

둘째로, 아버지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라’고 말했습니다(대상 28:9).

아버지 다윗은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께 형통의 복을 받는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형통의 복을 지키길 원했습니다.  
그 비결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셋째로, 아버지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너를 택하여 거룩한 성전을 건축케 하신 하나님의 일을 담대하게 행하라’고 말했습니다(10 절).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담대하게 주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행하라고 말씀한 이유는  
아버지 다윗이 생각하기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일은 큰 일인데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연약했기 때문입니다(29:1).

##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섬김은 ...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섬김은  
주님을 섬기되(요 12:26)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자기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행 20:24).

## 아버지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일까?

나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일까? (애 3:33),  
내가 "여호와와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하고 있을 때(1 절),  
내가 "어둠 안(속)에서" 걸으며 또한 살아가고 있을 때(3, 6 절),  
나를 "고통과 수고"로 포위하시며(5 절)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을 때(7 절), "내 길들을 막으"셨을 때(9 절),  
내 마음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셨을 때(17 절) ...  
내 "스스로" 내 자신에게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18 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54 절)라고 말할 때에  
바로 그 때에 그래도 나는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다(55 절).  
그런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물리치"셨다.(8 절).  
이렇게까지 나에게 하시느 아버지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일까? (33 절).

독생자 예수님에게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이였을까?  
내가 받아야 할 모든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에서 받으시고 고난 당하고 계셨던 예수님,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외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독생자 예수님의 기도를 물리치신 아버지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이였을까?



## 아버지의 마음?

자기 딸 디나가 세겜 땅의 추장인 세겜에게 강간을 당했을 때  
아버지 야곱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창 34:1-5)

세겜이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에게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고 말했습니다(11 절).  
그 때 야곱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혹시 자기 자신이 형 에서에게 은혜를 입고자 했던  
자신의 모습이 생각나지 않았을까요?(33:8, 10, 15)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세겜의 아버지인 하몰에게 거짓말을 하여  
그들로 하여금 할례를 행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34:14-17).

그 때 야곱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혹시 자기 자신이 형 에서의 축복을 대신 받고자  
아버지 이삭을 속인 것이 생각나지 않았을까요?(27 장)

야곱의 아들들이 거짓말로 속여 할례를 행하게 만들었을 때  
세겜은 야곱의 딸인 디나를 사랑했기에  
할례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했습니다(34:19).

그 때 야곱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혹시 지난 날에 자신이 라헬을 사랑하므로 그녀를 얻고자 일한  
세월 7년을 불과 며칠처럼 여겼던(29:20)  
자신의 모습이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아버지 야곱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의 형 에서가 "너와 함께 한 이들은 누구냐"고 물었을 때  
야곱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33:5).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 아비멜렉 왕 vs. 다윗 왕?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꺼안은 것을 창문으로 보고

"그녀가 분명히 당신의 아내인데도

어째서 당신은 그녀를 누이동생이라고 하였소? ...

당신은 어째서 우리에게 이런 짓을 하였소?

하마터면 내 백성 중 하나가 당신 아내를 가까이하여

당신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뻔하였소'라고 말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은 반면에(창 26:8-10)

다윗 왕은

저녁 때에 자신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충실한 군인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가 목욕하는 광경을 보고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 그 여인과 동침하고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그녀의 남편인 우리아까지 죽이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를 범하였습니다(삼하 11 장).

## 아비멜렉 왕과 바로 왕?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된 이삭에게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고 한 것처럼

(창 26:12-16)

애굽 왕 바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반드시 알아야 될 일이 있다.

네 후손들이 외국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400 년 동안 종살이하며 학대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벌할 것이니

그 후에 네 후손들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그 나라에서 나올 것이다”라고 약속하신 대로(창 15:13-14)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어(출 1:7)

애굽 사람들에게 400 년 동안 종살이하며 학대를 받았고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10 번째 재앙으로 인하여

애굽 나라에 모든 장남과 짐승의 처음 난 것이 모조리 죽은 후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너희와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은 일어나 즉시 내 백성을 떠나라”고 말하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빨리 그 땅을 떠나라고 재촉했습니다

(12:29, 31, 33).

##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십니다(막 8:17, 21).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떡이 없어서가 아니라(16 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고(마 16:12)

"경고"하신 것인데(막 8:15)

우리는 마음이 둔하여(17 절)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17, 21 절).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경고를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형식주의 및 외식주의와

사두개인들처럼 세속주의 및 물질주의를 조심해야 합니다.

##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스 10:2-3).

## 아침하는 것은 그물을 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이웃이 죄를 범하고 있는데

내가 그 이웃을 사랑으로 책망하기 보다

오히려 그 이웃에게 아침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 이웃의 발 앞에 그물을 치므로

스스로 올무에 빠지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잠 29:5, 6).

## 아침하는 사탄

우리가 환난과 역경 중에 있을 때  
사탄은 마치 개가 꼬리를 치듯이 우리로 하여금 죄와 타협하여  
편한 길로 가도록 아침합니다(박윤선)(살전 3:3).

###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시 143:8).

지금 오는 주일 교회 주보를 작성하고 있는데  
성경문답 부분을 하다가 시편 143 편 8 절 말씀이  
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실제로 저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는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새벽기도회는 큰 도움과 힘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새벽기도회 때 묵상하고 전하고 다시 묵상하면서  
말씀 묵상 글을 쓰는게 저에겐 큰 힘과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말씀 묵상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저로 하여금 주님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저로 하여금 주님을 의뢰케 하실 뿐만 아니라  
제가 다닐 길을 알려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순간에도  
이 시편 143 편 8 절의 귀한 말씀을 받고 주님께 제 영혼을 드립니다.

## 아픈 책망도

주님 안에서 진정한 우정은 친구의 아픈 책망도 겸허히 받는 것입니다(잠 27:6).

## 아픔 속에서의 기쁨?

우리의 마음이 아픈 것은  
고통스러운 일 때문이기 보다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간구하지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계시고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돌려 보고 계시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마음이 아픈 가운데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이뤄지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하신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13 편)

(Mark D. Futato 교수님의 "The Book of Psalms" 주석을 읽으면서)

##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  
"망령되고 헛된 말"은  
진리에 관하여 그릇된 말로써  
유익이 하나도 없고  
다툼만 일으키며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트리며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딤후 2:14, 16-18).

##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는 옛 속담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는  
옛 속담이 있습니다(삼상 24:13).

다윗은 사울 왕을 선대했지만  
사울 왕은 다윗을 학대했습니다(17 절).

다윗은 불량하고(25:17) 미련한 (25 절)  
나발에게 선을 행했지만  
나발은 다윗의 선을 악으로 갚았습니다(21 절).

##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은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고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습니다

(렘 4:22).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고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지 못하는 미련한 자들입니다.

## 악인의 마음

남의 재앙을 원하는 악인의 마음은

은혜를 배풀 줄을 모릅니다(잠 21:10).

## 악인의 소득은 ...

악인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재물은 더욱 불어나지만(시 73:7, 12)

그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고(잠 10:2)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릅니다(16 절).



## 악인의 형통, 의인의 고통?

악인이 형통한 것은 죄입니다(잠 21:4).

의인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은혜입니다(빌 1:29).

## 악인이 형통한 것은 죄입니다.

악인이 형통한 것은 죄입니다(잠 21:4).

그러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질투하는 것은? (시 73:3)

## 악평하여 원망하게 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지 않고 악평하므로  
온 교회 회중으로 하여금  
주님의 종을 원망하게 한 사람(들)은  
재앙을 만날 것입니다  
(참고: 민 14:36-37).

## 악한 눈이 있는 자 vs. 선한 눈을 가진 자

하나님 보시기에 인색한 사람(a stingy man)은 "악한 눈이 있는 자"입니다(잠 23:6).  
그 이유는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기 때문입니다(28:22).  
우리는 이러한 자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아야 합니다(23:6).

하나님 보시기에 너그러운 사람(a generous man)은 "선한 눈을 가진 자"입니다.  
그 이유는 선한 눈을 가진 자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기 때문입니다(22:9).  
우리는 이러한 자와 식탁 교제를 나눠야 합니다.

## 악한 부자는 ...

악한 부자는  
자기 것은 아끼면서  
가난한 자의 것은 아끼지 않습니다(삼하 12:4).

## 악한 생각의 결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 말씀을 부지런히 듣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도  
옛 본능대로 죄를 지을 악한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악한 생각이 우리 속에 오래 머물어 있을 때에  
그 악한 생각의 결과는 재앙입니다  
(렘 4:14).

## 악한 자

악한 자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봅니다(시 10:8).

악한 자는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합니다(2 절).

악한 자는 은밀한 곳에 엮드려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습니다(9 절).

악한 자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집니다(10 절).

악한 자는 자기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립니다(3 절).

악한 자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진행할 죄악이 있습니다(7 절).

악한 자는 그의 교만한 얼굴로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4 절).

악한 자는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고 말합니다(11 절).

악한 자는 자기의 마음에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말합니다(6 절).

## 안심할 수 있는 이유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는

위태한 상황으로 인하여(행 27:9-10)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을 때(20 절)

사도 바울이 안심했을 뿐만 아니라

함께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이제는 안심하라 ..."고

권면할 수 있었던 것은(22, 25 절)

그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24-25 절).

## 알면서도 평안히 죽을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후손들이 다른 나라에서 객이 되어 그 나라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은 내 400 년 동안 내 후손들을 괴롭힐 것이라는 말씀과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징벌하신 후  
내 후손들이 큰 재물로 이끌고 나오시겠다고 약속하신다면  
나는 그 말씀을 알면서도 평안히 죽을 수 있을까? (창 15:13-15)

## 애통하는 그리스도인은 ...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마태복음 5 장 4 절).

애통하는 그리스도인은 ...

1. 자신의 죄로 인하여 애통합니다(골 2:12).  
하나님과 의 일대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가 들춰질 때에 그/녀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합니다(마 12:41; 롬 2:4; 고후 7:10).
2. 자신의 가정(욥 1:5)과 교회의 죄(계 2:5, 22; 3:3)로 인하여 애통합니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는 가정과 교회, 주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주님의 말씀의 권위에 불복종하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가정과  
교회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3.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죄로 인하여 애통합니다(겔 18:30; 마 12:41; 행 13:24).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반항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녀는 성령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Iain M. Duguid, "Hero of Heroes"란 책을 읽으면서]

##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으리라.

부지런하라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라  
게으르지 말라  
믿으라  
오래 참으라  
그리하면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으리라  
(히 6:11-12).

##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주의 날"이란?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주의 날"이란  
결코 피할 수 없는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는  
멸망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살전 5:2-4).

##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나의 탓이로다"라고 아비아달에게 말했던 다윗(삼상 22:22),  
자기 때문에 아비아달의 아버지인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제사장들(11 절)  
85 명이나 죽임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18 절) 그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시 52:9).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 같으면 죄책감과 자책감으로 허덕일텐데,  
어떻게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그 이유는 그는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8 절).  
또한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8 절).

## 어떻게 결실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결실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아  
사탄이 즉시 뿌려진 말씀을 뺏아가지 못하도록  
그 속에 뿌리가 깊이 박혀져서  
말씀으로 인한 어떠한 환난과 박해 가운데  
오래 견디며  
또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므로  
30 배, 60 배, 100 배의 결실을 합니다  
(막 4:15-20).

##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을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두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기 위해선  
우리는 두려운 상황에 지배를 받기보다  
하나님에게 지배를 받아야 하며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기보다  
구원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대하 20:18-21).

## 어떻게 기도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빌 1:8)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3 절).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선  
우리 육신의 눈으로  
그 사람의 허물을 보기보다  
[사랑으로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잠 17:9)]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 속에서 행하시는 일(역사)을 볼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살전 1:3).

## 어떻게 꾀에 넘어갔을까요?

어떻게 삼손이 들릴라의 꾀에 넘어갔을까를 좀 곰곰히 생각해 보았습니다(삿 16 장):

1. 먼저 삼손은 들릴라의 배후 인물을 물렸습니다.  
그는 자기가 사랑하는 들릴라 뒤에 블레셋 다섯 지방의 통치자들이  
그녀에게 뇌물을 주겠다고 약속해서 자기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  
어떻게 하면 자기를 능히 결박하고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고 들릴라에게 시켰는지를 물렸습니다.
2. 그리고 삼손은 들릴라에게 세 번이나 거짓말을 하면서 세 번째 거짓말에 가서는  
자기의 머리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6-17 절)  
점점 더 그는 자기의 힘이 근원이 머리카락에 가까워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 그러다가 들릴라가 날마다 삼손을 재촉하여 조르니까  
삼손은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었다는 것을 볼 때에  
요셉을 날마다 유혹한 보디발의 아내가 생각났습니다.  
요셉은 그녀의 말을 듣지 아니하여 그녀와 동침하지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와 함께 있지도 않았는데(창 39:10)  
삼손은 들릴라에게 모든 것을 털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아예 그녀의 무릎을 베고 잠을 잤습니다(삿 16:18-19).  
자기 머리를 밀면 자기의 힘이 떠난나도 다 말해 놓고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잠을 잔다니  
'나를 잡아 먹으세요'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 어떻게 마음을 말로 위로할 수 있을까요?

야곱의 딸 하나를 "보고 끌어들이  
강간하여 욕되게" 한 후  
어떻게 그녀의 "마음을 말로 위로" 할 수 있었을까요?  
(창 34:2-3)

## 어떻게 사랑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탐심 속에서 유부녀를 간음하고  
그녀의 남편을 살인하여  
그녀를 도둑질하여  
자기의 아내로 삼아 낳은 아들 솔로몬을  
사랑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  
(삼하 12:24-25)

##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의 자세로  
성경을 읽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그 음성에 순종하므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참고: 요 7:17).

## 어떻게, 왜 앞서 보내신 것일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으로 앞서 보내셨습니까?(시 105:17)

요셉을 편애하는 아버지 야곱과  
요셉을 미워하는 요셉의 형들을 사용하셔서?(창 37:3-4)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두 개의 꿈을 꾸게 하시사(5-12 절)  
그 결과 요셉을 더욱더 미워하는 요셉의 형들을 사용하셔서?(8 절)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과  
우리에게 주신 꿈을 성취하심에 있어서  
우리 인간의 죄악된 자유 의지의 선택의 결과도 사용하십니다  
(참고: 롬 8:28).

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으로 앞서 보내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생명("우리 가족을")을 구원하시려고  
(창 45:5, 현대인의 성경)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구원으로 요셉의 형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그리하셨습니다(7 절, 50:20).

우리 안에서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빌 1:6).

## 어떻게 자녀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까요?

자녀가 성공하기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에  
중요한 것은  
우리 부모가 성경적인 성공의 비결을 알고  
믿음으로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성공의 비결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창 39:2, 3, 21, 23; 대상 22:11)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수 1:7-9).  
동시에 우리가 알아야 중요한 것은  
왜 우리 자녀가 성공을 해야 하는지  
성공의 목적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성공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창 45:5, 7).  
즉,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는 성경적인 성공의 비결과 성공의 목적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 어떻게 칭찬할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 사울 왕은  
아들 요나단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했는데(삼상 19:1)  
요나단은 그 명령을 내린 자기 아버지 사울 왕 앞에서

자기가 심히 좋아하는(1 절) 다윗을 "칭찬"했습니다(4 절).

##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레위기 1-5 장에 나오는 5 가지 번제를 통해서 얻는 교훈:

1.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고자(출애굽기)
2. 주일 예배당 문에 들어올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들어올 것(시편)
3. 몽땅 다 받치는 헌신의 자세로 예배를 드릴 것(번제, 레 1 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모든 영적인 축복을 이미 주셨기에)
4.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결심하는 자세로 예배를 드릴 것 (소제, 레 2 장)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빌 1:29)
5.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수직적인 관계) 및  
인간과 인간의 관계(수평적인 관계)가 회복되고 화목케 되었기에  
우리는 화목케 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예배를 드릴 것 (화목제, 레 3 장)  
(우리는 화평케 하는자, 화평을 지키는 자들임)
6.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범한 배상할 수 없는  
모든 죄들을 용서 받았기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를 구하면서 예배를 드릴 것 (속죄제, 레 4 장)
7.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범한 모든 죄를 용서를 구하되  
그들에게 배상을 한 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것 (속건제, 레 5 장)

##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본받게 하실까요?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고난 중에서도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순종케 하시므로  
주님을 본받게 하십니다  
(살전 1:6).

##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귀를 기울여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잠 22:17)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보전할 때(18 절)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19 절).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전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보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마 13:22).

## 어려움에서 더 큰 어려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그 어려움을 없애달라고 기도하고  
또한 기도 응답으로 그렇게 되길 기대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에서 더 큰 어려움이 생기도록 하시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기대했던 기도 응답이 아닌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더 심화되고 악화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한 위기에서 더 큰 생사의 갈림길에 놓이는 위기까지로  
인도하시는 것일까요?

어쩌면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는 위기와 더 큰 위기 가운데서  
우리의 연약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무기력하고 무능력함을 철저히 깨닫게 하시고  
인정케 만드시사 그 위기와 더 큰 위기 가운데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오직 하나님의 음성(약속의 말씀)를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주신 진실하시고 신실하시며 전능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요 승리의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시사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사랑과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리 인도하시는게 아닌가 생각됩니다(참고: 수 10: 8, 11:6 과 문맥).

## 어려움에서 더 큰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친다 하여도 ...

현재 어려움에서 더 큰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친다 하여도  
하나님의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 두려워하지 말라 ..." (수 10:8, 11:6).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10, 11 장).

##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는 이유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는 이유는  
이미 있는 것을 족한 줄 모르는  
자족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요  
또한 이 세상에 아무 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기에  
아무 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진리를 마음으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탐심 속에서 돈을 사랑하여 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딤후 6:6-10).

## 어리석은 길에서 돌이켜야 하는데 ...

하나님께서서는  
내가 걸던 어리석은 길에서 돌이켜  
지혜의 길을 걷기를 원하시지만  
  
사탄은  
내게 계속해서 어리석은 길로 걸으라고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길로 바로 가고 있는 자에게도 돌이켜  
어리석은 길을 걸으라고 미혹하고 있습니다(잠 9:13-18).

## 어리석은 자이기에

사랑하지 말았어야 할 여인을  
심히 간교한 친구로 말미암아 강제로/억지로 동침하여  
그녀를 욕되게 한 남자는 어리석은 자로서  
마땅히 행하지 말아야

어리석은 일은 한 것입니다(삼하 13:1-14).

## 어리석은 젊은이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듯(잠 7:23)

어리석은 젊은이는(7 절)

깊은 밤 흑암 중에(9 절)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녀의 집쪽으로 가서(8 절)

간교한 여인(10 절)의 여러 가지 꾀는 말에 유혹 받아 (21 절)

곧 그녀를 따르는데 그 모습이

마치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습니다(22 절).

## 어린 아이들과 같은 신앙인

"어린 아이들"과 같이(마 11:25)

순진하고 단순한 사람들은

"순전하고 신령한 것"(벰전 2:2)인 섞이지 않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자들입니다(3 절).

그러므로 그들의 입술에서는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시 63:3).



##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려야 합니다.

교회 생활을 한 나이는 성인인데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아직도 어린 아이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면 아니됩니다.

우리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려야 합니다(고전 13:11).

## 어쩌면 내가 선택한 길이 ...

보기에 풍성하게 할 것 같아 선택한 그 길이

어쩌면 궁핍케 하는 지름길일 수도 ... (참고: 창 13:10)

##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삼하 23:5).

## 어찌하여 나는 원하지 않는 ...

주님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어하는데(시 119:77)

어찌하여 나는 원하지 않는 죄악을(롬 7:19) 즐거워하고 있는 것인가?

## 어처구니 없는 미신적 신앙?

절대적인 신앙의 원칙인 진리를

자기 생각의 줄을 대로 해석해서 적용하면서도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한다는 것은 (삿 17 장)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미신적 신앙이라 생각합니다.

## 억지로 풀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을 열심히 연구한답시고

그 성경 말씀을 억지로 풀어서(벧후 3:16)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여

자기 마음대로 믿는 것을 볼 때

성경을 보는 틀(frame)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틀은 바른 교훈(sound doctrine)으로서

제 개인적으로는 개혁신학의 틀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틀안에 박혀 있는 것도 위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시에 열려있지 않는 상태)

그 틀밖에서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 얻기 위해서 버려야

최고의 가치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가치가 하나도 없는 다른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빌 3:7-8).

## 얻기 위해서는 ...

얻기 위해서는 버려야 합니다(빌 3:8).

다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욕심이요 교만입니다.

## 얼굴엔 수심, 마음엔 근심

사랑하는 형제/자매가 당한 곤경을 보고

우리 마음엔 근심이 있으므로

우리 얼굴엔 수심이 있어야 합니다

(느 2:2, 3, 17).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그 형제/자매를 기억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경험해야 합니다

(4-5, 8, 18 절).

## 얼굴이 뻘뻘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배반하는 패역한 우리들은

얼굴이 뻘뻘하고 이마와 마음이 굳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겔 2:3-4, 7).

## 얼마나 큰 은혜인지 ...

우리는 우리의 죄는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죄의 결과만 알고 있기에  
“만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째서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라고  
하나님께 반문하고 있습니다  
(삿 6:13, 현대인의 성경).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못깨달고 있는  
매우 중요한 사실이 적어도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징벌을 받는 죄를 범한  
우리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지 않은 죄인들과 함께 계시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 업신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어린 아이와 같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며  
실족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 18:6, 10).

##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주신 하나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왕상 18:1)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엘리야(2, 15 절), 오바द्या를 통하여 아합을 만났을 때(16 절) 아합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17 절).

그 때 엘리야는 아합에게 이렇게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와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사백오십 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사백 명을 갈멜 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18-19 절).

그랬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와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36-37 절)라고 간구하였을 때 그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38 절).

그 때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던(21 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핏은”것을(38 절) 보고

앞드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39 절).

엘리야는 그 모든 백성들에게 바알 선지자들을 한명도 도망가지 못하게 다 잡으라고 하여

그들을 잡아다가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다 죽였습니다(40 절).

그런데 이스라엘 왕후 이세벨이 사신을 통하여 엘리야에게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는 말을 듣고 (19:2)

엘리야는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했습니다(3 절).

그는 “광야로 들어가” “한 로렘 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원하여”

하나님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라고 간구했습니다(4 절),

그리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이 유별하”였던 엘리야였는데(10, 14 절),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므로(10, 14 절)  
엘리야는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3 절)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8 절).

호렙 산 굴에 들어가 머물러 있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9 절).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굴 밖으로 나가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11-12 절).  
그리곤 엘리야는 다시금 하나님께 사명을 받습니다(15-17 절).

선지자들이 다 죽고 오직 자기만 남았는 줄 알았는데  
이젠 엘리야는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7,000 명을 이스라엘 가운데 남기시겠다는  
약속의 말씀도 받았습니다(18 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하였고, 육신적으로 심히 지쳐있었고,  
죽기를 간구했던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되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시므로 그를 다시금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 결과 엘리야는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21:17-18)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고 내려간(18 절) 아합을 만납니다.

아합은 엘리야를 보고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20 절).

그 때 엘리야는 그에게 이렇게 담대히 말하였습니다:

“내가 찾았노라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네게 내려 너를 쓸어 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매인 자나 놓인 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네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네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였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르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20-24 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다시금 일으켜 주시사  
그로 하여금 아합 왕에게 다시금 담대히 말을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자포자기할 정도로 절망하고 있는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 엘리아의 하나님

마치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물에 빠져 갔던 것처럼(마 14:30)

엘리아도 "이 형편(왕상 19:2)을 보고" 두려워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갔습니다(3 절).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비도 이슬도 있지 않는 상황이므로(17:1)

"얼마 후에" 시냇가의 물이 마를텐데도(4, 7 절)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 앞 그릿 시냇가(3 절)로 "곧" 갔던 엘리아였는데(5 절),

떡이 없고 가루 한 운금과 병에 기름 조금으로 음식을 만들어

자기 아들하고 마지막 식사를 하는(12 절) 시돈에 속한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엘리아였는데(10 절),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증하다가 숨이 끊어"졌을 때에도(17 절)

하나님께 부를짓으므로(21 절) 하나님께서 그 죽은 아이를 다시 살리신 기적도 목격한

엘리아였는데(22 절),

자기를 찾아 죽이려는 아합 왕 앞에서(18:10)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였다고 담대히 말해던 엘리아였는데(18 절),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여 승리한 엘리아였는데(20-40 절),

갈멜산 꼭대기에서 땅에 꿇어 엎드려 자신의 얼굴을 무릅사이에 넣고 (42 절)

끈기있게 하나님께 간구하므로(43 절) 큰 비가 내리는 것을 경험한 엘리아였는데(45 절),

그는 왕후 이세벨의 말을 듣고 도망갔습니다 (19:2-3).

그는 광야로 들어가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께 죽기를 구한 후(4 절) 잠이 듭니다(5 절).

그 때에 천사가 두번이나 엘리아에게 나타나 그를 어루만지며

"일어나서 (음식을) 먹으라"고 말합니다(5, 7 절).

그리곤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염려합니다(7 절).

엘리아는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사십 주 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렘에 이"룹니다(8 절).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9-18 절).

결국 하나님께서는 엘리아를 다시 일으켜 주셔서 사명을 주셨습니다(15-18 절).

엘리아의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여 쓰러질 때  
다시금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아의 하나님은 택하신 주님의 종을 통하여 뜻하신 바  
사명을 완수하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 엘리에셀, 에벤에셀

"엘리에셀"(뜻: 하나님의 도우심)(출 18:4),  
"에벤에셀"(뜻: 도움의 돌)(삼상 7:12).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사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어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선  
우리는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될 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와 같이 될 줄 알아야 합니다  
(고전 9:20-22).

우리는 물과 같이 될 줄 알아야 합니다.  
물은 어느 모양의 컵에게 부어져도  
각각 그 컵의 모양을 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 여호와 이레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라고 믿는 자만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창 22:8, 14).

###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출 39:1, 5, 7, 21, 26, 29, 31, 32, 42; 40:19, 21, 23, 25, 27, 29, 32).

"모세가 그 마친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했습니다(43 절).

1.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2. 우리는 주님의 종을 통하여 주님의 명령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종은 주님의 명령을 주님의 백성에게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3.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끝까지 순종하여 모든 일을 마치면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 여호와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 도망다니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금하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 왕의 옷자락을 뱀으로 마음이 찢렸습니다  
(삼상 24:4-6).

다윗 왕은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다니고 있었을 때  
사울의 친족인 시므이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신을 저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죽어야 마땅하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삼하 16:5-13, 19:21-23).

그러나 다윗 왕은

시므이를 무죄한 자로 여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왕상 2:9).

## "여호와와 동산" 같으면 뭐합니까?

우리 눈으로 볼 때

"여호와와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으면 뭐합니까?

우리의 의로운 심령이 상함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

(창 13:10, 뱀후 2:7-8)

## "여호와와 명령을 따라"

"여호와와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치고 진영에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일 년이든지")

머물러 있기도 하고, 행진을 하기도 했으며

또한 "여호와와 직임을 지켰"습니다

(민 9:18, 19, 20, 22, 23).

## 연보를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께 연보를 드림에 있어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마음에 정한 대로 하되 전에 약속한 연보를 준비하여

하나님께 즐겨 내야 합니다(고후 9:1-7).

## 연약하고 피곤한 심령을 ...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며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시며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 잠을 주십니다

(렘 31:23-26).

##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

신앙 생활에 계속해서 꾸준히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려면  
신앙의 가뭄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 렘 17:8).

## 열매 없는 열심?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해 왔는데  
열매가 없어 보이면  
충분히 낙심할 수 있습니다  
(참고: 왕상 19:10, 14).

## 염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충분히 염려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막 4:19)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는 것은  
(마 6:34, 눅 12:22, 빌 4:6)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맡겼기 때문입니다  
(벧전 5:7).

##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그 날까지 ...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롬 8:1).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하나님의 법"(7:22, 25), "믿음의 법"(3:27)]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의 법에서(8:2, 참고: 7:23, 25)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8:2).

우리는 죄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7:23, 25, 8:2).  
우리는 죄에게 종 노릇 하는데서 해방되었습니다(6:6, 16, 17)  
우리는 사망에서 해방되었습니다(6:23, 8:2).

이젠 우리는 영생(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6:22, 23).  
이젠 우리는 의에게 종이 되었습니다(18 절).  
이젠 우리는 하나님께 종이 되었습니다(22 절).

그러므로 이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시 40:8).  
그러므로 이젠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마 6:33).  
그러므로 이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답게  
예수님의 이중계명을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눅 10:27).

우리 모두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그 날까지(8:21)  
참된 자유인답게 주님의 뜻인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 영생과 사랑이 그 속에 ...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나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 줄 마음을 닫"는 자는  
영생과 사랑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합니다(요일 3:15, 17).

## 영생에 관심만 있는 부자?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기 보다  
이 땅에 쌓아두는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큰 부자들은  
영생에 관심은 있지만 그 영생의 삶인 이웃 사랑을  
구체적으로 자기의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지 않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눅 18:18-25).

## "영생을 주시기로 작성된 자"?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행 13:46).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39 절)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을 믿었습니다(39 절).  
그러나 "영생을 주시기로 작성된 자"들인 이방인들은(48 절)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39 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찬송했습니다(48 절).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노력이나 선행이나 착함이나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영생을 주시기로 작성된 자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 영생이란?

영생은 참된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요 17:3, 현대인의 성경).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갈 5:22-23).

주님 안에 산다는 것은(요일 2:6)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므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5 절).

영원한 생명이란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주님 안에 사는 것(거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에는 사랑과 기쁨이 충만합니다.

## 영생이란? (2)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할 때

영생을 그저 내세의 영원한 생명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아니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생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현재에도 우리가 부분적으로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생”이란 단어가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곳은 요한복음입니다.

헬라어로 "영생"은 "조에(life) 아이오니오스(eternal)"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조에"(생명)라는 말과 "아이오니오스" (영원한)라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즉, "영생"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인터넷):

이것은 첫째로 시간적으로 "끝없이 지속되는 생명"을 의미하고,

둘째로 질적으로 "인간의 삶과는 다른 신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영생이란 말에는 시간적으로 영원한 삶이란 의미와,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신적인 삶이란 의미를 둘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을 보면 "영생"의 의미는 공관복음처럼 "내세에서 누릴 영원한 축복"도 의미하지만

그보다 "현재"에 누리는 축복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주님을 믿는 자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졌으며,

그 축복을 주님 안에서 현실 속에서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현재에 우리가 누리는 영생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통하여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요 17:3) 나누는 가운데 주시는 내세의 축복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하나님의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현재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분적으로 누리는 영생의 축복은

바로 성령님의 성화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현재 부분적으로 누리는 영생의 축복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은바 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갈 때에 우리는 천국의 기쁨을 부분적으로나마 맛보는 것입니다.

또한 영생의 축복은 평안입니다.

비록 평화가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부분적으로나마 영생의 축복인 하나님의 평강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시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악행이 많고  
우리의 죄가 허다하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고난을 당할 때에라도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광야에서 은혜를 베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시기에  
인자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세워주십니다  
(렘 30:11-15; 31:2-4).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도 부분적으로 누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다가오는 저 세상인 천국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세상에서도 누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생이란  
천국에서 충분히 누리겠지만  
이 땅에서도 부분적으로 누리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부분적으로 누릴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살면서(요일 2:6)  
주님의 말씀을 지키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온전하게 될 때에(5 절)  
우리 마음에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므로(요 15:11)  
우리는 이 땅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부분적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 영원한 생명의 죽음??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참고: 요일 1:2)

## 영적 스펙?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영적 스펙의 권리를 내세우고 있는 것은  
아직도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빌 3:8).

## 영적 탐지기?

건물 안에 연기 탐지기(smoke detectors)가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영적 탐지기(spiritual detectors)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영적 탐지기가 제대로 작동이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 옴 1:7 - 영적 지각).

## "영적 혈관"이 막히고 있는 것은 아닌지 ...

어제 주일 만난 사람들 중 두 형제님이  
혈관에 문제가 있어서 큰 일을 당했었다.  
한 분은 혈관에 '피떡'이 있어서 심장 마비(?)가 올 수 있을 정도였던 것 같았고,  
또 다른 형제는 실제로 뇌출혈이 작은게 왔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두 형제님이 생각났는데  
동시에 생각난 말씀이 마태복음 13 장 22 절이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나는 생각난 이 말씀을 생각하는 가운데  
"영적 혈관"이 막히는 것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성경에서는 그 영적 혈관이 막히는 이유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지금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인해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또 듣지만  
영적 혈관이 점점 더 막히고 있는 것은 아닌지 ...  
그러다가는 영적 혈관이 꼭 막히게 되면  
주님을 향한 마음 사랑에 심장 마비가 올 수 있지 않을까?  
주님을 알아가는 머리 지식에 영적 뇌출혈이 올 수 있지 않을까 ...?

## 영적으로 어린아이는 ...

영적으로 어린아이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합니다  
(엡 4:14).

## 영적인 사랑 vs. 육적인 사랑?

"영을 따르는 자"(롬 8:5), 즉 성령님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열매인 사랑으로  
예수님의 이중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도 사랑합니다.  
사랑하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 사랑은 영적인 사랑이지 결코 육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나는 주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영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자매를 사랑하는데  
그 형제/자매는 나의 영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영적으로 받아주지 못하고 육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기쁨, 우리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 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야 한다.  
영혼 구원(복음전파)에 헌신해야 한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 한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해야 한다.  
그리하므로 죽어가는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  
천국의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 것이다.

[2016 승리 36주년 말씀집회 첫째날 주신 말씀 묵상]

## "영혼의 닻" 같은 "이 소망"

"영혼의 닻" 같은 "이 소망"은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갑니다(히 6:19).

그 "휘장 안"으로 "앞서 가신 예수"님(20 절)은

우리의 "영혼의 닻" 같으신 소망이 되십니다.

이 소망되신 예수님께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17 절)인 우리에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계 22:20).

"거짓말을 하실 수 없"으신(히 6:18) 주님이시요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는 주님께서서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으므로(17 절)

반드시 우리 주님은 속히 오실 것입니다(계 22:20).

그러므로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의 닻"을(19 절)

우리의 소망되신 주님과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내려서

믿음으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계 22:20)라고 신앙 고백하면서

선장되신 주님의 배를 우리의 "피난처"로 삼아 "큰 안위"를 받으면서(히 6:18)

저 천성을 향하여 향해하십시오.

<새찬송가 432 장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둔 바다">

(3 절)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녘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후렴>

나 두렵 없네 두렵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흥흥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https://youtu.be/p-Kbz8QjwGQ>

##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아 듣지 못했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씀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요 2:19-21).

예수님은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말씀하신 것인데  
유대인들은 그 복음을 알아 듣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예수님이 성전을 모독한 죄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어야 한다고 확고히 믿었습니다.

##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할텐데 ...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의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하므로  
사람들이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여러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할텐데 ...  
(행 26:20-23)

## 예수님과 바울

로마인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해서

"이 사람은 죄가 없도다"라고 말했습니다(눅 23:4, 14-15, 22).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놓으려고 했습니다(16, 20 절).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습니다(21, 23 절).

로마인은

사도 바울을 심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반대했습니다(행 28:18-19).

## 예수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십니다(막 8:12).

그 이유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 줄 표적이 없는데(마 16:4)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막 8:11).

예수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요나의 표적이(마 12:39) 가리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3 일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참고: 31 절)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바리새인들처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구하는 표적을 구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 예수님께서서는 어떠한 베드로를 보셨을까요?

잡혀가시던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었던 사도 베드로(눅 22:54),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후(55-60 절)  
닭이 곧 울었고(60 절)  
주님께서서는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습니다(61 절).

왜 예수님은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을까요?

예수님께서서는 어떠한 베드로를 보셨을까요?

자기에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니이다"라고(마 26:35)

말했던 베드로를 보셨을까요?

자기를 세 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보셨을까요?

아니면 장차 "사람을 낚는 어부"를 보셨을까요?(마 4:19)

##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계시로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마 16:16-17).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습니다  
(행 9:5, 20, 22).



## 예수님을 멀리서 따라갔던 베드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였던 베드로,  
그러므로 잡혀가시던 예수님을 멀리서 따라갔던 그를  
예수님께서서는 돌이켜 보셨습니다  
(눅 25:61).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눈과 마주쳤을 때 베드로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라도 예수님을 좇고 싶습니다.

## 예수님을 미워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미워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참고: 롬 9:13)

##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핍박을 하던 자가  
이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는 핍박을 받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 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빌 3:10).

##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 (1)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 (2)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
- (3)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 (4)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셨다(중생).
- (5) 하나님께서 회심케 하셨다(회개와 신앙).

## 예수님을 믿지 않는 며느리(사위)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지 않는 며느리(사위)로 인하여  
마음에 근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창세기 26:35)  
내 삶이 싫어졌고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하고 있지는 않지요? (27:46)

## 예수님을 본받는 목사님은 ...

예수님을 본받는 목사님은  
불량배 같은 교인들이 멸시를 해도  
잠잠히 침묵합니다  
(삼상 10:27).

##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가 역경 속에 있는 형제, 자매를 위로하며  
믿음에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형제, 자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각나게 해야합니다(고전 4:17, 살전 3:2).  
우리는 그 형제, 자매에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복음을  
듣고 순종하는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므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빌 1:27).

## 예수님을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중 계명을 범하므로  
예수님을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참고: 롬 2:23).

## 예수님을 진정으로 아는 자

예수님을 안다고 말은 하면서도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아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아는 자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합니다.  
(요일 2:3-6)

## 예수님의 "강생"과 "강림"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

예수님의 "강생"과 예수님의 "강림"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드려야 하는 것일까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초림" 때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님의 "재림" 때 다시 이 세상에 보내실 것입니다.

보내심을 받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뜻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서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보냄을 받은 자들로서  
보내신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 28:19-20).

## 예수님의 계명, 바울의 이웃 사랑

예수님께서서는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마 22:39)  
사도 바울의 이웃 사랑은 교회 안에서 믿음이 강한 형제가  
믿음이 약한 형제를 기쁘게 하되 그 형제의 약점을 담당하고(책임을 지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롬 15:1-2).

##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1)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사 53:3).

##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2)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귀히 여김을 받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는 귀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 53:3).

##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항상 예수님의 말을 들으셨습니다  
(요 11:42).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막 15:34)라고  
부르짖으셨을 때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으셨습니다.

## 예수님의 용서 기도

무죄하신 예수님을

(눅 23:4, 14-16, 22)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신 21:23; 갈 3:13)

십자가에 못박혀 죽게한 유대인들을 위하여

(눅 23:23)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 상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라고 기도하셨습니다(34 절).

## 예수님의 제자는 ...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종할 때 기적을 경험합니다.

자신의 죄인됨과 예수님의 주님되심을 깨닫습니다.

다 버리고 주님만 따릅니다.

주님께서 그를 사람을 살리는 어부가 되게 하십니다

(눅 5:1-11).

(2017. 6.30., 첫째날 말씀집회 때 받은 교훈)

## 예수님이 드리셨던 특별 기도

예수님이 드리셨던 특별 기도,  
겻세마네 동산에서 몹시 괴로워하시되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셨을 때  
예수님께서서는 특별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특별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막 14:32-36).

제가 "아빠 아버지께"(36 절) 드리고 싶은 특별 기도가 있습니다.  
그 특별 기도는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함에 있어서  
제 생명이 요구되는 때에 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의 극심한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 속에서  
주님께서 제 생명을 받치는 특별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직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하는  
특별 기도를 아빠 아버지께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어 사역 금요 기도회 때 원로 목사님을 통하여 설교 말씀을 듣고 기도한 후  
영어 사역 금요 기도회를 마친 후 두 지도자 형제들과 찬양과 기도를 드린 후]

## 오늘 아침에 받는 4 가지 교훈

1. 당장 분노를 내지 말고 참고 또 참자(잠 12:16).
2. 함부로 이웃에 대하여 헐담하지 말고 입술을 절제하자(잠잠하자)(11:12-13).
3. 마음에 미움이 있지 않나 점검하자.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10:12, 18).
4. 상대방의 책망도 나에게 유익되게 하자(9:7-9).

## 오랫동안 품고 있는 악한 생각

표출된 행동의 죄, 사람들은 알고 있는데 나는 모르고 있는 죄,  
표출된 행동의 죄, 사람들도 알고 나도 알고 있는 죄,  
숨기고 싶은 행동의 죄, 나만 알고 다른 사람들은 모르길 원하는 죄,  
숨겨진 행동의 죄, 나만 알고 있는 은밀한 죄,  
숨겨진 생각의 죄, 생각의 영역에서 내가 수 없이 범하고 있는 죄,  
악한 생각의 죄, 생각의 영역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범하고 있는 악한 죄,  
악한 생각의 죄, 생각의 영역에서 내가 버리지 못하고 오랫동안 품고 있는 죄.

오늘 주님께서는 나에게  
"네가 악한 생각을 언제까지 품고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렘 4 장 14 절, 현대인의 성경).

이 악한 생각을 오랫동안 품고 있다보면  
"악을 행하기에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합니다(22 절).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더라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5 장 21 절).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22 절).  
"고집세고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주님을 배반하고 돌아섰습니다(23 절).  
나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좋은 복"을 빼앗겼습니다(25 절, 현대인의 성경).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속에 없는  
"바람"과 같은 거짓 목사들(13 절)의 거짓 복음  
["다른 복음"(고후 11:4; 갈 1:6-9)]과  
그들의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는 것을  
"좋게 여기고 있"습니다(렘 5 장 31 절).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런 일을 보고서도 어찌 그들을 벌하지 않으며  
이런 민족에게 보복하지 않겠느냐?"(9, 29 절).



##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 보이길 원합니다(눅 9:36).

## 오히려 악을 만들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그들의 길이 험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그들을 향한 분노를 그치고 버려야 합니다.  
안그러면 오히려 악을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시 37:7-8).

## 오히려 지금 우리는 ...

우리는 죄악을 떠나 주님의 진리에 초점을 맞춰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우리는 주님의 진리를 떠나 우리의 죄악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단 9:5, 13).

##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데 ...

담대히 나갔던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 뒤에 애굽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고 심히 두려워했던 것을 보면 그들은 광야에서 애굽 사람들 손에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살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출 14:8-12).

그런데 그들은 신광야에서 고기 때문에 "여호와와 그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한 것(16:3)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는 것은 심히 두려워 했으면서도 하나님의 손에 죽임을 당하는 것은 하나도 두려워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 온유한 그리스도인은 ...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마 5:5).

온유한 그리스도인은 ...

1. 하나님을 아가므로 자신을 아갑시다.
2. 분수에 넘치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3. 겸손합니다.
4. 비판을 받되 방어적이지 않습니다.
5. 자신의 실수와 연약함과 잘못을 속히 인정합니다.
6. 잘못을 보면 담대하게 마주칩니다.
7. 자신이 큰 죄인임을 알되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있습니다.
8.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드러내기 위하여 자신에게 임한 어려움을 견디며 인내합니다.

## 온전하고자 하는 자

온전하고자 하는 자는

자신이 아직도 무엇이 부족한지 압니다(마 19:20, 21).

##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현숙한 부모는 ...

현숙한 부모는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에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진주보다 더 값진 현숙한 배우자를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조금 전 수요기도회 때 "현숙한 여인"인 룻에 대해서(룻 3:11) 묵상하면서

적용하되 현숙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지 한 가지만 설교한 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 한 가지란 현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이다.

룻이란 모압 여인이 보아스라는 유대인 남자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2:10).

그리고 룻은 보아스에게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니이다"라고 말했다(13 절).

룻은 보아스에게 그가 베풀어 준 은혜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리고 너무나 그 은혜에 감사했던 것이다.

그러면서 그녀는 보아스에게 더욱더 은혜 입기를 사모했다.

이것이 바로 현숙한 여인이다, 은혜를 사모하는 여자.

나는 현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고 싶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큰 죄인이어늘 어찌하여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저를 돌보시나이까'라며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나 같은 죄인에게 베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내 마음으로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자에게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라 생각한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듯이(롬 5:20)

신앙 생활의 여정에 내 죄를 더욱더 깊이 많이 깨달아 가면 갈 수록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에게(딤후 1:15) 베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쳐날 수 밖에 없다.

그 은혜의 바다에서 헤엄을 치고 싶다.

비록 그 은혜의 바다의 표면에는

풍랑과 파도라는 위험과 위기와 고통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은혜의 바다 깊은 속에서 진주조개가 진주를 만들어 가고 있듯이  
내 삶의 현실에 어떠한 풍랑과 파도가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 속에는 진주보다 귀한 예수님의 마음(심장)으로 변화되길 기원한다(빌 1:8).  
그러므로 나 또한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은혜의 힘으로 다른 지체들보다 더 주님의 일에 수고하고 싶다(고전 15:10).  
그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시길 기원한다(갈 2:20).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주님이 명하신 일을 다 마친 후에 이렇게 겸손히 고백하고 싶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눅 17:10).

내가 먼저 이러한 현숙한 그리스도인 되고 싶다. 기도한다.  
그리고 우리 부부가 이러한 현숙한 그리스도인되야 한다.  
그러면서 우리 부부는 우리 자녀가 현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움 받길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그리할 때 우리 자녀가 현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자기를 위한 현숙한 배우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찾을 것이다.  
그 이유는 현숙한 배우자는 진주보다 더욱더 값지기 때문이다(잠 31:10).

## 옳바른 판단 .. 결심 .. 실행

성경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옳바른 판단을 내린 후 실행으로 옮기려고 결심을 했다면  
그대로 해야합니다.  
사람들의 큰 소리로 하여금 이기도록 내버려두므로  
그들이 요구하는 그들의 뜻대로 행해서는 아니 됩니다  
(참고: 눅 23:4, 15, 22-25).

## 완고한 마음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거든  
우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히 3:7-8).

완고한 마음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된 마음으로서(13 절),  
하나님을 시험하며(8, 9 절)  
하나님을 격노하게 하며(15 절),  
미혹되는 마음으로서 주님의 길을 알지 못하며(10 절),  
하나님을 믿지 않고(12, 19 절) 순종하지 않는(18 절; 4:6)  
악한 마음입니다(3:12).

## 왜 결과가 내가 기도하고 기대한대로 되지 않은 것일까?

왜 결과는 내가 기도하고 기대한대로 되지 않은 것일까?

나는 내 기도의 열매(마 7:17)를 통해 내 마음을 뒤돌아 보아야겠다.

내가 기도하고 기대한대로 되지 않은 이유는

어쩌면 나는 하나님께 잘못 구하였기 때문이다(약 4:3).

나는 내가 접한 상황의 반응인 두려움(출 1:10)과 근심(12 절)가운데서

내가 지혜롭게(10 절) 구한답시고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구한게 아니다.

나는 주님의 원하시는대로가 아닌 내가 원하는대로

하나님께 구했다(참고: 마 26:39).

## 왜 결실하지 못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들지만  
사탄이 즉시 와서 뿌려진 말씀을 뺏아 가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넘어지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기에 결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막 4:14-19).

## 왜 그런 남자랑 결혼을 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잘 이해가 안됩니다.  
왜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운 여인 아버가일이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미려한 부자 나발하고 결혼을 했는지 ...?  
(삼상 25:2-3, 25)

## 왜 그리 빨리 잊어버리고 속히 떠나는 것일까?

예배를 드리고 뒤돌아 서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잘 생각나지 않습니다.  
  
예배당을 떠나서 가정과 세상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빨리) 떠나 하나님께 죄를 범합니다  
(참고: 신 9:12, 16).

## 왜 그리도 열심히 ...?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행 26:7)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9 절)

우리 인간의 노력과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인가요?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과

그리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신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기에

열심히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 왜 나는 주님의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것일까?

왜 나는 주님의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것일까? (요 6:61)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걸림돌이 되는 이유는 나의 불신앙 때문이다.

(존 맥아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교회를 복음화해야 할 것인가"

in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를 읽으면서)

## 왜 나오미는 그리도 괴로웠을까?

성경 룻기서에 나오는 나오미가  
자기 고향 유다 여인들에게 자기를 "나오미"(뜻: "나의 즐거움")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뜻: "쓰다")라고 불러달라 한 이유는  
유다 베들레헬을 떠나기 전에 풍부했지만  
모압 땅에서 다시 유다 베들레헬으로 돌아올 때에는  
빈손이었기 때문 뿐만 아니라 (룻 1:20-21)  
자기 남편과 두 아들이 죽었기 때문이겠지만 (3, 5 절)  
어쩌면 그 궁극적인 이유는 그녀는  
자기 남편의 대를 이을 손자가 없어서  
자기를 "마라"라고 불러 달라고 한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랬기에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기업 무를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  
이는 네 생명의 회복자이며 네 노년의 봉양자라 ..."라고 말한 후(4:14-15)  
그 아기에게 "오벳"이라고 이름을 지어주면서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말했다고 생각합니다(17 절)  
(오벳은 그녀의 아들이 아니라 손자인데 말입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됩니다(16 절).



## 왜 내 뜻을 고집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셨습니다(욘 3:10).

니느웨 백성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10 절).

그러나 요나 선지자는 매우 싫어하고 성냈습니다(4:1).

그는 죽고 싶을 정도로(3 절) 매우 싫어하고 성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자기의 뜻을 고집했기 때문입니다.

요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사십 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였습니다(3:4).

그래서 그는 니느웨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내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4:5).

그가 기대한 "무슨 일"이 무엇이였겠습니까?

니느웨 성읍이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3:4).

왜 우리는 입술로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마음으로는 내 뜻을 고집하고 있는 것일까요?

## 왜 다른 여자의 가슴을 안으려는 것일까요?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고  
그녀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녀)의 사랑을 항상 연모"해야 하는데  
왜 "음녀를 연모하"며  
왜 다른 여자의 가슴을 안으려는 것일까요?  
(잠 5:18-20)

## 왜 마음에 시기가 가득한 것인가?

예수님을 믿고 참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종교적 예식에 익숙한 사람은  
마음에 시기가 가득합니다  
(행 5:17).

## 왜 믿음이 견고하지 않은 것인가?

나의 믿음이 자라나 믿음에 견고히 서 있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내 신앙에 유익한 고난이 없기 때문이란 생각이 듭니다  
(시 119:67, 71).

# 왜 번제물의 가죽을 벗겨 태우지 않고 제사장에게 주었을까? (레위기 1:6, 7:8)

어쩌면 그 이유는 ...

1. 죄인을 심판했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에
  - a. 이스라엘/유다가 이방인 적군들에게 침략을 당하였을 때('벗기다'라는 단어의 또 한가지 의미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복을 벗겼음(겔 16:39, 23:26; 미 2:8)
  - b.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채색옷을 벗김(창 37:23);
  - c. 아론이 죽기 전에 그의 옷을 벗김(이스라엘의 과거의 죄로 인하여)(민 20:26, 28).
    - (1) 진정한 아론이 되시는 의로우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심?
  
2. 죄와의 싸움에 승리했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에
  - a.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죽은 자 또는 죽임을 당한 자를 벗겼음(삼상 31:8; 대상 10:8)
    - (1)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속죄제물로 드려진바 되므로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
  
3. 죄인을 사랑했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에
  - a. 요나단이 자기 생명보다 사랑했던 다윗에게 자기가 입고 있었던 겹옷을 벗어 주었음(삼상 18:4)
    - (1) 의로우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자신의 생명보다 사랑하셨음.
  
4. 흥미로운 관찰:
  - a.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시기 전에 옷을 벗기고 흉포를 입혔다가(마 27:28) 회롱을 다 한 후 흉포를 벗기고 도로 예수님의 옷을 입혔음(31 절).
    - (1)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의 옷을 제비 뽑아 나뒀음(35 절).

## 왜 사람이 변질되는 것일까요?

왜 사람은 변질되는 것일까요?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은 처음에는 베푸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순종했었습니다(창 24:31-34, 50-51).

그런데 야곱의 장인인 라반은 나중에는 욕심이 많은 사람으로 변질되었습니다

(31:7, 14-16, 41-43).

그 원인이 뭘까요?

저는 그 원인을 창세기 30 장 27, 30 절이라 생각합니다:

"라반이 그(야곱)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

내가(야곱이) 오기 전에는 외삼촌(라반)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떼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

즉, 라반이 변질된 원인은 소유가 번성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좀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그는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말미암아 주신 물질의 복을 겸손히 누릴 수 있는

신앙과 성품이 없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주님안에서 꾸준히 변화되지 않는 자는

재물의 풍부함으로 말미암아 변질될 수 밖에 없습니다.

## 왜 사탄은 우리를 막을까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습니다  
(살전 2:17).

그러나 사탄이 바울을 막았습니다(18 절).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쩌면 그 이유는

바울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았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1:6)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었을 때(2:14)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고,

주님을 배반하여,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눅 8:12-14).

## "왜 여러분 자신을 가르치지 못합니까?"

“그런 여러분이 남은 가르치면서도

왜 여러분 자신은 가르치지 못합니까?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여러분이 도둑질하고”(롬 2:21, 현대인의 성경).

가르치는 자세보다 배우는 자세가 더 중요합니다.

성도님들을 가르치려고 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가르쳐야 합니다.

영적 거울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부지런히 살펴보아야 합니다(자아반영, 자아성찰).

잘 배우는 자가 잘 가르치는 자입니다.

## 왜 우리가 의지하는 것을 끊으시는 것일까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젓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도(신 6:3; 11:9; 26:9, 15; etc.)

기근이 들게 하시사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습니다(시 105:16).

왜 하나님께서는 그리하신 것일까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케 하시고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 이루시고자?(창 12:7)

애굽으로 이주케 하시사

그곳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번성케 하시고자? (출 1:7, 12, 20)

그러므로 결국에 가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에서 인도해 주시고자?

모세가 죽은 후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런 저런 "기근"이 들게 하시사

우리가 의지하는 "양식"을 끊으시는 이유는 ...?

# 왜 이런 괴로운 일들이 내 인생에 일어나고 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

왜 이런 괴로운 일들이 내 인생에 일어나고 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삼상 22:3)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주신 일들이든지  
아니면 허락하신 일들로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나에게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도, 내일도 보이는데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 것입니다  
(고후 5:7, 현대인의 성경).

## 왜 이리 사람들이 변한 것일까요?

야곱의 외삼촌인 라반은

하나님께서 조카 야곱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복 주신 줄을 깨달았습니다(창 30:27).

조카인 야곱도

자기가 외삼촌 라반은 집에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었지만

자기가 라반은 집에 온 후로는 번성하여 떼를 이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이유가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30 절).

그런데 야곱이 라반의 집에 있는지 20년이 되었을 때(31:41) 자기 외삼촌 라반은 안색을 보니까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않았습니다(2 절).

그리고 라반은 아들들도 야곱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말하기를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였습니다(1 절).

왜 이리 사람들이 변한 것일까요?

왜 라반은 야곱을 전과 같이 대하지 못한 것일까요?

왜 그는 야곱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도 복 주신것을 알면서도

야곱을 전과 같이 대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왜 라반의 아들들은 야곱으로 인해 자기 아버지 라반이 하나님께 복 받은 생각은 하지 않고

야곱이 자기 아버지 라반은 소유를 다 빼앗았다고 생각한 것일까요?

야곱이 "매우 번성하여 양 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아져서 그랬던 것일까요?(30:43)

제 생각엔 이 모든 것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31:3, 참고: 13 절).



## 왜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할 필요가 있나요? (눅 10:29)

만일 우리가 옳바른 성경적인 지식[예: 예수님의 이중 계명 (27 절)]을 가지고 있고  
또한 옳바른 그리스도인 다운 행동[예: 이웃을 사랑하여 불쌍히 여겨  
자비를 베푸는 것(30-37 절)]을 하고 있다면  
왜 사람들 앞에서 우리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하겠습니까?

옳바른 지식과 옳바른 말만 하는 입술만 있으면 뭐합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37 절).

## 왜 책망이나 징계하지 않았을까요?

자식인 암논이 이복 누이인 다말에게  
큰 악을 행한 것을 알고도  
심히 노하기만 하였지  
아무 사랑의 책망이나 징계를 하지 않았던 아버지 다윗으로 말미암아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이 암논을 미워하여  
결국 2년 후에는 암논에게 복수하였습니다  
(삼하 13:21ff).  
왜 다윗은 다말에게 더 큰 악을 범한 암논을 책망도 하지 않았을까요?  
혹시 다윗 자신이 과거에 유부녀 밧세바와 동침하고  
그녀의 남편을 의도적으로 죽인 큰 죄악 때문이었을까요?

## 왜 하나님께서는 ...?

불신자 사공들은 불순종하는 요나 선지자보다

더 주님의 뜻을 행하였습니다(욘 1:14).

그리고 불신자 사공들은 불순종하는 요나 선지자의 생명을 아꼈지만(13 절)

요나는 니느웨 성읍에 사는 죄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120,000 여명을 아끼지 않았습니다(4:11).

요나가 아낀 것은 자기의 괴로움을 면하게 해준 박냉쿨(6 절),

자기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낫다가 하룻밤에 말라 버린 박냉쿨이었습니다(6, 10 절).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 요나 선지자 한 사람을 아끼셨을까요?

## 왜 하나님께서는 ...?

인생의 불어오는 큰 바람과 폭풍으로 인하여

내가 사랑하는 가족 식구를 이 세상에서 떠나보내므로 말미암아

마음에 큰 상처가운데서(욘 1:19, 9:17)

하나님께 반문할 때 왜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폭풍우 가운데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38:1, 40:6)

## 왜 하나님께서는 멀리 돌려 인도하시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레셋 사람의 땅의 가까운 길로 인도하시지 않으시고 멀리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인도하신 것일까요? (출 13:17-18)

저는 그 이유는 적어도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하나님께서는 홍해 바다에서 “그(바로 왕)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고자(14:4),
2. 하나님께서는 시내 산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말씀인(34:28) 십계명을 주시고자(20 장), 그리고
3.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주리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신 8:2-3).

저는 이 세 가지 이유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인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멀리 돌려 인도하시는 이유에게도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적용되는 이유를 하나로 간략하게 요약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이중계명인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와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마 22:36-40)는 명령을 주시고 우리를 경손케하시사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멀리 돌려 인도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정한 약속의 땅인 천국으로 인도하시면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으로 돌려 인도하실 때에 예수님의 이중 계명을 순종하며 살게 하시려는 것일까요?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시민권(빌 3:20)이 있는 우리를 천국인으로 만드시사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므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려고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일까?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한 것일까?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인데(창 22:1-2)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한 것일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고 싶으셨기 때문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않는지를 알려고 하신 것이다.

그 근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 길로 걷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광야 길로 걷게 하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며 그들을 시험하사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않는지를 알려고 하신 것이다(신 8:2).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했다.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다.

그 때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멈추게 하였고(창 22:11-12 상)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했다: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12 절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셨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셨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였기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한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자 우리를 시험하신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를 유혹한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목적은 우리를 무너트리려고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목적은

언약의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저주를 받게 하는 것이다(첫째 아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신다.

그 목적은 시험을 이기게 하시사 우리로 하여금 언약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이다(마지막 아담 예수님).

##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을 때 도착한 곳은 가나안 땅,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는 기근이 심했습니다(창 12:4-5, 10, 히 11:8).

왜 하나님께서는 기근이 심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일까요? (10 절)

풍부한 땅으로 인도해 주시면 안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우리의 생각과 기대한대로 풍부한 땅만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박녕쿨"을 예비하시사 우리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시므로

우리가 크게 기뻐하게 하십니다.

그러시다가 하나님께서는 "벌레"을 예비하시사

우리가 크게 기뻐하는 것을 값아 먹게도 하십니다.

그러신 후 하나님께서는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시사

우리로 하여금 흥미케 하시고 심지어 우리 스스로 죽기를 구하게 만드실 정도까지 가게 두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크게 기뻐하고 매우 아끼는 것을 가지고 가시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욘 4:6-11).

## 왜 하필이면 ...?

왜 하필이면 믿음이 흔들리고 영적으로 퇴보할 때에  
재물(수입)이 늘어나는 것일까요? (참고: 시 62:3,4, 10)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게 하다가(마 6:24)

결국에는 하나님 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미워하고 돈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온갖 악의 뿌리가 됩니다.

이것을 가지려고 열망하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고통을 당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습니다"

(딤후 6:10, 현대인의 성경).

## 왜 하필이면 까마귀들과 가난한 과부였을까요?

하나님께서서는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그릇 시냇가에서 엘리야 선지자를  
먹이게 하셨을뿐만 아니라 사르밧에서는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조금 기름밖에 없어서  
자기 자신과 자기 아들을 위하여 마지막 한끼 음식을 만들어 먹고  
굶어 죽게될 과부에게 명령하여  
엘리야 선지자에게 음식을 주게 하셨습니다  
(왕상 17:3, 9, 12).

왜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들과 가난한 과부에게 명령하사  
엘리야 선지자에게 음식을 주신 것일까요?

## 웬만해서는

웬만해서는 하나님 앞에 경비하지 않습니다(출 10:3).

## 외로움의 기회?

우리가 삶 속에 겪는 외로움은  
어쩌면 우리가 원하는 주님의 공동체를 찾아야 하기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부드러운 음성을  
들려주시려고 하시는지도 모릅니다(호 2:14).

## 외면 당하는 고통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멀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할 때  
나를 도와주지도 않고  
내 목소리를 듣지도 않으면  
외면 당하는 나는 매우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하물며 사랑의 주님께서  
나를 멀리하시는 것 같고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며  
내 신음 소리도 듣지 않고 계시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시 22:1)

## 외식하는 우리들

외식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전통을 강조하면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니다(마 15:5-8).

## 요구한 것을 우리에게 주실지라도 ...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요구한 것을 주시지 않으셔도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시 106:6).

우리의 조상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 주님의 놀라운 일을 깨닫지 못하며

주님께서 수없이 베푸신 사랑을 기억하지 않고

홍해에서 주님을 거역했습니다(7 절, 현대인의 성경).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해 주시되(8 절)

홍해를 마르게 하시사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9 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대적들을 물로 덮으시사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 남지 못하게 하셨습니다(11 절).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13 절)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14 절).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15 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영혼을 쇠약하게 하셨습니다(15 절).

회개하지 않은 가운데서 욕심을 품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이 두렵습니다.

그 이유는 그 기도 응답이 우리에게 "탐욕의 무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 11:34, 현대인의 성경).



## 요나가 불순종한 이유?

왜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니느웨로 가지 않고

오히려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을 갔을까? (욘 1:1-2)

왜 그는 이방인 사공들에게 자기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말했을까? (12 절)

니느웨가 멸망을 당하기를 원하되 요나는 자기가 바다에 빠져 죽으면

니느웨 사람들이 자기를 통하여 경고를 받지 못하므로 결국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멸망을 당하기를 죽고 싶을 정도로 원했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

그는 이스라엘의 원수인 앓수르가 멸망해야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이 살 줄 믿었던 것 같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도 회개하길 원하셨던 것 같다.

(BRYAN D. ESTELLE, "THE GOSPEL ACCORDING TO JONAH:

Salvation Through JUDGMENT AND MERCY"를 읽으면서)

## 요셉과 예수님?

애굽 왕을 섬겼던 떡 굶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은 바로 왕에게 죄를 범해서 감옥에 갇혔지만(창 40:1)

요셉은 아무 죄가 없는데 감옥에 갇혔습니다(15 절, 창 39 장).

그리고 그 감옥의 간수장은 바로의 떡 굶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제일 중요한 죄수들이었기에

의로운 요셉으로 하여금 그 두 죄수들을 섬기게 하였습니다(39:23, 40:6ff.).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에 죄의 형벌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죽을 수 밖에 없었지만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걸머지시고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받으시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제일 귀하게 여기시기에 의로우신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에

죽게하시기까지 우리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Iain M. Duguid 의 "LIVING IN THE LIGHT OF THE INEXTINGUISHABLE HOPE"이란 책을 읽으면서)

## 요셉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 (1)

형들보다 아버지 야곱에게 더 사랑을 받으므로 형들에게 미움을 받은 요셉,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하므로 더욱 미움을 받은 요셉(창 37:3-5),  
그렇게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랑하고 계셨기에  
그를 향하신 계획과 뜻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그 계획과 뜻은 바로 애굽 바로 왕의 신하 친위대장인 보디발에게  
팔려가는 것이었습니다(12-36 절).

가족 식구들에게 미움을 받는가운데서도  
당신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미움을 받는 가운데서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믿을 수 있을까요?  
더욱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사랑하는 가족 식구들과 멀리 떨어져 살아야 하는 것이라면,  
그래도 당신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겠습니까?  
그래도 당신은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믿겠습니까? (롬 12:2)

## 요셉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 (2)

바로 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에게 산바 된 요셉,  
사랑하는 식구들과 강제로 분리되어 외국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된 요셉이지만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므로 그는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창 39:1-2).  
심지어 그의 주인인 불신자 보디발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과  
또한 하나님께서 요셉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습니다(3 절).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그의 주인인 불신자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게 하시므로  
보디발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게 하셨습니다(4 절).  
그 결과 그 때부터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불신자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습니다(5 절).  
왜 하나님께서 그리하셨을까요?  
요셉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무엇이이었을까요?

사랑하는 가족 식구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외로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서는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가족 식구들이 당신을 미워하여 당신을 버린다 할찌라도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을 사랑하사 당신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형통케 하십니다.  
형통케 하시되 하나님께서는 당신 주위에 있는 불신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므로 형통하게 하심을 보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으로 하여금  
그 불신자(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사 당신을 높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하여 그 불신자(들)의 집이나 회사에도 복을 내리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리하시는 것일까요?  
당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일까요?  
그 뜻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임을 믿어야 합니다  
(롬 12:2).

## 요셉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 (3)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던 요셉,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했지만  
요셉은 거절하였습니다(창 39:6-8).  
그 이유는 요셉은 주인인 보디발이 금한 것은 그의 아내였기 때문입니다(9 절).  
요셉은 자기의 주인에게 충성했습니다.  
그 보다 더 큰 이유는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9 절).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는 “날마다” 요셉에게 동침하기를 청하였습니다(10 절).  
요셉은 그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녀와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다(10 절).  
그런데 어느 날 하루, 요셉이 일하러 그의 주인 집에 갔었을 때  
그 집 사람들을 하나도 없고 그 주인의 아내 밖에 없었습니다(11 절).  
어쩌면 그녀가 요셉과 단 둘이 있고 싶어서 그랬는지도 ...  
어쩌면 그녀는 요셉과 동침하기를 결심하고 그녀의 집 사람들을 ...  
그녀가 요셉의 옷을 잡고 “나와 동침하자”라고 말했을 때  
요셉은 자기의 옷을 버려두고 도망하였습니다(12-13 절).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요셉은 자기를 유혹하는 그녀를 멀리했을 뿐만 아니라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의 유혹도 뿌리치고 도망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애굽 왕의 죄수를 가두는 옥에 갇히게 됩니다(20 절).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가만 보고만 계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요셉으로 하여금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도록 허락하셨을까요?  
요셉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이였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악을 멀리라하는 말씀(욘 28:28)에 순종하려고 힘쓰면 힘쓸수록  
이전 보다 더 큰 유혹이 점점 더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성적 유혹에 시달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음을 그 유혹으로부터 멀리도망가고 싶지만  
연약한 우리의 육신은 그 유혹으로 자꾸만 향하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요셉으로 하여금 그의 주인인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는데(창 39:4)

왜 하나님께서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날마다 동침하자고 유혹하는 것을  
내버려두셨을까요(유혹하도록 허락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셉이 그녀의 유혹을 뿌리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두 번 거짓 증거(14, 17-18 절)로 말미암아

결국 요셉으로 하여금 옥에 갇히도록 가만히 계셨을까요?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그 옥에서 애굽 왕의 술 맡은 자를 만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40:1, 9-15 절).

아니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이 있는 왕궁에서 왕의 술 맡은 자를 만나게 하시지

왜 하필이면 옥에서 만나게 하셨는지 우리의 이성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두 번이나 꿈을 꾸어서

형들에게 더욱더 미움을 받은 요셉으로 하여금

술 맡은 자와 떡 굶는 자의 꿈을 해석케 하셨는지 참 하나님의 일하심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으로 하여금 왕의 술 맡은 자의 꿈을 해석케 하시므로

결국에는 꿈을 꾸곤 애굽 왕을 만나게 하셨습니다(41:9ff.)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과의 만남도 “만 이 년 후에”(1 절)

그리하셨는지 잘 이해가 안됩니다.

빨리 좀 만나게 해주셨으면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

에서 2년 동안 고생을 하지 않았을텐데 말입니다.

그것도 하필이면 술 맡은 자처럼 애굽 왕 바로도 꿈을 꾸게 하시사 (1 절)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게 하시고(8 절)

오직 요셉으로만 하여금 그 꿈을 해석케 하셨는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참 놀랍습니다.

이 낮고 낮은 땅에 거하는 우리가 어떻게 하늘과 같은

하나님의 높은 생각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사 55:9).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 3:5-6).

## 요셉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 (4)

더 이상 정을 억제할 수가 없었던 요셉,

큰 소리로 명하여 모든 하인들을 물러가게 하고 자기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렸습니다(창 45:1).

그리고 그는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2 절).

요셉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 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4-5, 7-8 절).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17 살 때 곧 두 번의 꿈(37:6-11)을 39 살(30 살의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 7 년의 풍년 후 + 2 년 짜

흉년 = 39 살)이 되어서야 하나님께서 왜 그 꿈들을 꾸게 하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에 팔리도록 허락하셨는지,

왜 억울한 누명을 써서 옥에 갇히게 하셨는지,

왜 애굽 왕 바로의 신하인 술관원의 꿈을 해석케 하시므로

2 년 후 바로 왕의 꿈까지도 해석케 하셨는지,

그러므로 왜 하나님께서

한 가정인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높이시고,

옥에서 제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높이시다가

결국에는 한 나라인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뜻은 바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형)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형)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였습니다.

자기를 미워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인데,

그러다가 결국에는 자기를 돈 주고 판 형들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그들의 후손을 생명을 구원하시고 보존하시며 이 세상에 두시려고

요셉으로 하여금 17 살때부터 39 살까지 요셉으로 하여금 그 모든 미움과 죽음의 위기와 팔림과 노예 생활 및 감옥 생활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게 된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8 절)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았는데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애굽으로 보내셨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형들보다 “먼저” 애굽으로 보내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형들의 생명과 그들의 후손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17 살 때 꿈을 꾀지만 그 꿈의 뜻을 몰랐던 요셉,  
22 년이 지난 39 살이 되어서야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22 년 동안이나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지 못했는데 ...  
17 살 때부터 30 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13 년 동안이나 고난을 당하였는데 ...  
그 와중에서도 성경에는 요셉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였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요셉은 입술로나 행동으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요셉은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잠 3:5-6).  
요셉은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롬 12:2)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십니다.

## 요셉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 (5)

형악한 나그네의 세월을 130년 보내었던 요셉의 아버지 야곱(창 47:8-9),  
애굽 땅에서 17년을 거주하다가 그의 나이 147세가 되어 죽을 날이 가까왔을 때(28-29절)  
그는 요셉에게 자기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29-30절)고 말합니다.  
야곱은 병들었을 때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한 후(48장)  
자기 아들들을 불러 유언을 한 후 죽습니다(49장).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맹세한대로 애굽 왕 바로에게 허락을 받고  
아버지 야곱을 가나안 땅에 있는 묘실에 장사합니다(49:4-14).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던 요셉(50:10)은  
아버지를 장사한 후 자기 형제들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습니다(14절).  
그런데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이 죽었음을 보고  
요셉이 “혹시” 자기를 미워하여 자기들이 행한 모든 악을 요셉이 다 갚을까봐(15절)  
두려워했습니다(19, 21절).  
그래서 그들은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말을 전합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당신에게 이런 말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지시하셨습니다.  
네 형들이 너에게 악한 짓을 했을지라도 이제 너는 그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어라.  
그러니 이제 당신도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16-17절, 현대인의 성경).  
그 전갈을 받은 요셉은 울었습니다(Joseph wept)(17절).  
예수님도 우셨는데 …(Jesus wept) (요 11:35).

왜 요셉은 울었을까요? 왜 그는 형제들의 전갈을 받고 울었을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명령을 하신 적이 없는데  
형제들이 말을 만들어 그렇게까지 거짓말하는 것을 생각하니 안타까워서 울었을까요?  
자기를 두려워하는 형제들을 생각하니 불쌍해서 울었을까요?  
이미 자기는 형제들을 마음으로 다 용서했는데  
용서를 구하는 형제들을 생각하니 슬퍼서 울었을까요?  
아버지 야곱을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던 요셉은 그의 형제들로 인하여 다시금 울었습니다.  
회개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던 형제들을 생각하면서 요셉은 울었습니다.



우리는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를 미워하고 시기한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로 하여금 큰 고통을 겪게한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와 화목하게 지내지 않는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마음을 심히 아프게 한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범하고 있는 큰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용서의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를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용서해야 합니다.

요셉은 이미 그의 형제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형제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라고 말하였을 때(18 절)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습니다(19-21 절).

어떻게 요셉은 그의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시편 34:8).

요셉은 그의 형제들이 자기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기에

그는 형제들을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용서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때에 가능합니다.

비록 형제, 자매(부모)가 나를 의도적으로 괴롭히고 나에게 상처를 주며 나로 하여금 수 없이 눈물을 흘리게 했다 할찌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나에게 선을 이루어 나아가셨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우리는 우리 형제, 자매(부모)를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용서에는 소극적 용서(passive forgiveness)와 적극적 용서(active forgiveness)가 있습니다.

소극적 용서는  
더 이상 미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적극적 용서는  
이전 보다 더욱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공급하는 것입니다.  
베푸는 것입니다.  
간곡한 말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천국 시민권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위로의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 욕심 가운데 드러진 기도도 들어주시는 하나님??

큰 욕심을 내어 하나님을 시험할 때에도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요구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십니다(시 106:14-15).

영혼의 건강이 중요하나요 아니면 물질의 풍부함이 중요하나요?

## "욕심꾸러기 개처럼"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몰지각한 목자들"

"그들은 욕심꾸러기 개처럼 만족할 줄 모르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몰지각한 목자들이다"  
(사 56:11, 현대인의 성경).

### 욕심을 따를 때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를 때 음행합니다(민 15:39).  
["안목의 정욕" (요일 2:16)]

### 욕심이 많은 사람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킵니다(잠 28:25).

### 욕심이 많은 사람

욕심이 많은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보다  
자기 자신을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과 다툼을 일으키지 화목하게 못지냅니다.  
그/녀는 하나님 보시기에 미련한 자입니다(잠 28:25-26).

## 욕을 받아도 욕하지 말아야 하는데 ...

예수님께서서는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셨습니다(벧전 2:23).

성경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3:9).

예수님처럼 이 말씀을 인간관계에서 순종하기가 왜 이리 힘든지요...

상대방이 나에게 무시하는 말을 하든 상처 입히는 말을 하든

다 받을 수 있는 포용력이 있어야 하는데 ...

상대방이 그렇게 말했다고 나도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

오히려 마음으로라도 복을 빌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세요.

## 욥기 23 장 10 절 말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 23:10).

1. 지금이나 앞으로나 나는 내가 가는 길을 (전혀) 모르겠지만 내 주님은 알고 계시다는 사실이 나에게 위로가 되며 희망을 줍니다.
2.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통(고난)은 주님이 나를 단련하고 계시다고 믿으니 인내하며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주님이 고난의 용광로로 나는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순금 같이 되어 나오게 하실 것을 생각하니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릴 것입니다.

## 욥기서의 핵심?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욥 1:9).

욥기서의 핵심이 욥의 고통(suffering)이 아니라

욥의 의(righteousness)라는 말이 새롭고 흥미롭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의 죄 때문에 그가 고통을 당한다고 말하였고

욥은 하나님께서 불공평하셔서 자신이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욥이 고통당하였던 것은

하나님께서 불공평하셔도 아니고 그의 죄 때문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가 고통을 당한 이유는 사탄이 하나님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현대인의 성경) "욥이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데는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욥 1:9)라고

말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받은 자녀나 물질의 축복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안에서 허락을 받아 사탄은

욥의 자녀들과 물질을 다 쳤지만(그래서 고통을 당하였지만)

그래도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22 절).

결국 사탄은 틀렸습니다.

욥은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여

하나님께 받은 축복들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이유는 오직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행하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우리는

더 이상 무슨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자녀의 축복이나 물질의 축복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 때문입니다!

[John H. Walton & Tremper Longman III 의 "How to Read Job"을 읽으면서]

## 용서해야지 경고하면 어떡합니까?

범한 죄를 회개한 자를  
용서를 해야지  
세상 사람들처럼 경고하면 어떡합니까?  
(눅 17:3)

###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아야 합니다(사 7:15-16).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범사에 해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살전 5:21-22).

###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합니다(행 17:28).

###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신자들 앞에서 정직하여 허물을 보이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삼상 29:3, 6).

##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심각한 죄

외식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없애는 것처럼 꾸며서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 가식적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속이는 심각한 죄입니다  
(참고: 마 7:6; 성경해설)

##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임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임 중에는  
유익되지 못하고 오히려 해로운 모임이 있습니다(고전 11:17).  
이러한 모임에는 분쟁과 파당이 있습니다 (18-19 절).  
우리는 이러한 모임과 아울러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임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사 1:13).

## 우리 기독교인들의 심한 패역함

우리 기독교인들의 심한 패역함은  
우리의 계획과 일을 하나님께 깊이 숨기려하여  
어두운 데에서 행하면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하고 있습니다  
(사 29:15-16).

## 우리 남편들은 ...

우리 남편들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지 않고  
그녀의 사랑스러움과 아름다움을 모르고  
그녀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지 않으며  
그녀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고 있지 않고 있다면  
다른 여자를 연모하며  
다른 여자의 가슴을 안으려고 할 수 있습니다(잠 5:18-20).

## 우리 마음을 돌리게 만드는 사람?

우리의 마음을 돌려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불신자 이성이나 배우자를  
하나님 보다 더 사랑해서는 아니됩니다(왕상 11:1-9).

## 우리 목사님들은 ...

우리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렵고 복잡하게 전하지 않고  
다만 진리를 분명하게 전함으로  
하나님 앞과 모든 사람 앞에  
거리낌없이 생활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고후 4:2, 현대인의 성경).



## 우리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아야 ...

우리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설교를 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고후 2:17).

## 우리 목회자들의 욕심으로 인하여 ...

우리 목회자들의 욕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양 떼들이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의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양 떼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겔 36:20, 39:7, 43:8).

## 우리 자신의 죽음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살아 있는 우리가 마음에 뒤야(명심해야) 할 것은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의 끝은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전 7:2).  
우리는 결혼식보다 장례식에 가서 우리 자신의 죽음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끝을 깊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어드려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지를  
곰곰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언젠가는 우리 모든 인생 기차의 종착점에서 내려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 '우리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마라나타)

주님을 사랑하였던

사도 바울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고전 16:22),

사도 요한

"...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말했습니다(계 22:20).

예수님께서서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20 절).

그러므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마라나타'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전 16:22, 계 22:20).

## 우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서는 성전 문을 닫았으면 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이상

헛되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말 1:10).

주님의 사랑을 모르고(2 절),

주님을 공경하지 않으며 두려워하지도 않고(6 절),

주님을 더럽게 하는(7 절)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을까요?(10 절)

## "우리가 ..."

물고기 2 마리와 보리떡 5 개로 남자만 5,000 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계셨습니다(요 6:6).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5 절).

여기서 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주시는 깨달음은 2 가지로 요약해 봅니다:

1. 그 "우리" (5 절) 중에 빌립은 "... 부족합니다"(7 절)이라고 말했고 안드레는 "...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9 절)라고 말했습니다.  
한 마디로, 그들은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우리" 중에 예수님께서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계셨습니다(6 절).  
즉, 나는 할 수가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다는 작은 깨달음입니다.
2. 비록 나는 할 수가 없고 주님은 하실 수 있지만 주님께서 안드레가 찾아서 데리고 온 한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보리떡 5 개와 물고기 2 마리를 사용하시사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저에게 주는 교훈은 나는 가진 것도 별로 없고 할 줄 하는 것도 별로 없고 등등  
그러할지라도 내게 있는 것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그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물고기 2 마리와 보리떡 5 개를 사용안하셔도  
충분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물고기 2 마리와 보리떡 5 개를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한 아이를 안드레가 남자만 5,000 명이나 모인데서 찾아서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 인간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습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기에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고전 10:13).

##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 이유는 ...

1.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에(수 1:3),
2.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5 절),
3.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하셨기에(9 절).

## 우리가 놀래야 할 점은 ...

우리가 놀래야 할 점은 우리의 삶 속에 예상하지 못한 역경과 고통이 아니라

그 역경과 고통으로도 우리 자신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과

하나님께서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학 2:17).

[Iain M. Duguid & Matthew P. Harmon, "Zephaniah, Haggai, Malachi"을 읽으면서]

## 우리가 마음으로 죄를 계획하고 있으면 ...

우리가 마음으로 죄를 계획하고 있으면(궤하고 있으면)(미 2:1)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내릴 "재앙"을 계획하고 계십니다(3 절).

##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

우리 사람들은 교회 건물의 "아름다운 돌과 선물로 꾸민 것을 말"하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기에  
그것보다 우리가 가짜 예수를 따를 까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눅 21:5-9).

## 우리가 받길 원하는 큰 축복과 하나님께서 주시길 원하시는 큰 축복

보통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풍족한 물질의 축복을(눅 5:6)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축복으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물질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축복 중에  
지극히 작은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물질의 축복보다는 "재물 얻을 능력"의 축복이 더 큰 축복입니다(신 8:18).  
물질의 축복은 더 큰 축복을 받는 도구일 뿐입니다. ]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큰 축복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으므로 회개하는 것입니다(눅 5:8).  
[어느 누가 회개의 축복을 물질의 축복보다 더 크게 여기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제일 큰 축복은  
우리를 부르시사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10 절).  
[이 축복이 풍족한 물질의 축복보다 더 크고  
더 귀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리스도인은 복된 자입니다.]

## 우리가 보기에 “나쁜 곳”과 아주 ‘좋은 것’

우리가 보기에 "나쁜 곳"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없고" 없고 "없도다"입니다(민 20:5). 즉, 우리가 보기에 나쁜 곳은 우리가 부족함을 많이 느끼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나쁜 곳"에서 하나님께 옳드려 간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6 절).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나쁜 곳"에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7-8 절).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아니합니다(12 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나쁜 곳"에서 우리의 원망의 소리도 들으시사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십니다(11 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기에 "나쁜 곳"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아주 '좋은 곳'은(사사기 18:9, 현대인의 성경)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이 번영을 누리"는 곳이요(7 절, 현대인의 성경) "그 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곳입니다(10 절). 우리가 보기에 아주 '좋은 곳'은 우리가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곳입니다(27 절). 그러기에 우리는 그 아주 '좋은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결국에 가서는 우리는 그 아주 '좋은 곳'에서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합니다(30 절). 우리가 보기에 아주 '좋은 곳'은 하나님께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는 곳입니다.

## 우리가 보기에는 나빠 보일지라도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쁜 곳으로" 인도하신 것 같을 때 (민 20:5) 우리는 옳드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6 절).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7-8 절). 우리가 그 말씀에 믿음으로 겸손히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나빠보이는 곳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으로 바꾸실 것입니다(11 절).

## 우리가 보기엔 참 딱한 사정입니다.

우리가 보기엔 참 딱한 사정입니다(창 40:14, 현대인의 성경).

요셉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힌바 되었으니 말입니다(39:11-23).

우리가 보기엔 분노할 만한 사정입니다

요셉이 옥에서 애굽 왕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한 후

그에게 해몽되로 관직이 회복되면

분명히 자기의 사정을 바로 왕에게 아뢰달라고 부탁했는데 (40:1-22)

그가 2년 동안이나 잊어버리고 있었으니 말입니다(40:23-41:1).

우리가 보기엔 낙심할 만한 사정입니다.

요셉이 2년 동안이나 옥에 갇혀있었으니 말입니다.

2년이란 세월을 허송했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41:1).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사정을 제일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힌 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2년 동안이나 옥에 갇혀 있었던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2년을 결코 허송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요셉의 형들과 그들의 자녀들 및 후손들을 구원하시어

이 땅에 두시고자 요셉의 삶 속에 섭리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45:7-8; 50:20-21).

##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람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람은 시험이나 연단을 통하여

그/녀의 인품이 훌륭하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참고: 빌 2:22).

##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는 증거?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는 증거는 한 3 가지를 점검해 보면 좀 알 수가 있습니다:

1. 나는 점점 더 죄에 대하여 무감각해지고 있다(혹은 있는 것 같다)(엡 4:19).  
나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있다 (롬 5:13).
2. 나는 점점 더 공로의식에 매여 있다 (눅 18:11-12).  
나는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보다  
내가 주님과 교회를 위하여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있다(마 25:44).
3. 나는 점점 더 교만해 지고 있다(잠 21:4, 겔 28:5).  
나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길 좋아한다(요 12:43).

## 우리가 아끼는 사람, 하나님께서 아끼는 사람?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매우 아끼는 것이나  
매우 사랑하는 사람을 요구하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아끼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롬 8:32)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 원하시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아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아끼는 그 것이나 사랑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에 하나님께 겸손히 믿음으로 받쳐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끼시는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아끼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 우리가 의뢰하는 것을 끊으시는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여  
하나님께 범죄할 때에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의지하는 것을 끊으시사  
우리로 하여금 부족하게 하시므로  
우리가 근심하며 두려워 떨며  
우리 죄악 중에서 쇠퇴하게 하십니다  
(겔 4:16-17).

## 우리가 점점 더 약해져 갈 때에 ...

우리가 점점 더 연약해져 갈 때에 우리는 낙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우리가 느끼는 것은  
'이것은 내 책임이 크다. 내 잘못이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충분히 실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 시편 109 편 4 절 하반절 말씀을 붙잡습니다:  
"... 나는 기도할 뿐이라"(but I am a man of prayer).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에  
엎드려 무릎꿇고 아빠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겸손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 운동력있는  
약속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사 그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 낙심한 마음에 역사하시어  
우리의 영혼을 다시금 소성케 하십니다.

##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 ...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귀히 여기십니다(요 12:26).

## 우리가 지혜롭게 행하면 ...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므로 우리가 지혜롭게 행하면 우리는 사람에게도 높임을 받고 또한 모든 사람들도 우리가 높임을 받는 것을 합당히 여길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를 질투하며 두려워하고 우리의 평생에 대적이 될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삼상 18:5, 9, 12-16, 20, 28-30).

##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대하는 구원(건지심)은 ...?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대하는 구원(건지심)은 더 나은 상황으로의 변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건지심)은 우리가 보기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스스로 구원할 수(건질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쩌면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케 하시고자 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깨달아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고자 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케 하시고자 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김경원 목사님의 "하나님의 길, 요나의 길" 주일 설교를 들으면서 요나 선지자가 바다에 던져진바 되었을 때(욘 1:15) 어쩌면 그가 기대했던 구원은 큰 물고기 뱃속이 아니라(17 절-2:9) 곧장 육지로 건짐을 받는 것(2:10)이 아니었을까 생각하면서]

##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는 ...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는(대하 20:19)

우리 삶에 아무 문제가 없고 고통도 없고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있고 평안해서가 아닙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큰 어려움과 힘든 일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그 큰 어려움과 힘든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경험하고 있기에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21 절).

어떻게 그 큰 어려움과 힘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그 큰 어려움과 힘든 일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무능력함과 어찌할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12 절)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므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말씀을 받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감사하므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찬양의 능력과 역사는

우리가 믿음으로(20 절) 하나님께 노래와 찬송을 시작할 때에(22 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도 응답의 말씀을 성취해 나아가신다는 것입니다(22-24 절).

할렐루야!

## 우리가 해야 할 기도와 고백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시 115:1).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눅 17:10).

## 우리가 행진하기 위해선 ...

"여호와께서 주마 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기 위해선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 칠지를" 알아야 합니다(민 10:29, 31).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안식처를 향하여

우리가 행진하기 위해선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안식일에 안식을 해야할지 알아야 합니다.

## 우리는 그저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저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도구로서 주님이 안써주셔도 감사, 써주셔도 감사해야 합니다.

그저 우리는 도구로써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도구로서 주님께 쓰임 받은 후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써 주신 것에 대해 감사, 감사해야합니다.

그저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눅 17:10).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 우리는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레 18:30).

## 우리는 마음과 뜻으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과 뜻으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우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우리는 마음과 뜻으로 알아야 합니다  
(수 23:14).

## 우리는 미리 걱정, 하나님은 먼저 해결

우리는 미리 걱정하지만  
하나님께서서는 먼저 가서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것을 미리 해결해 놓으십니다  
(참고: 신 1:30, 33).

## 우리는 부끄럽고 낮이 뜨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가증한 일들로 인해  
근심 중에 '나의 하나님이며 내가 부끄럽고 낮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스 9:4-6).

##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께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고 계십니다(요 17:16-17).

## 우리는 수치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계속해서 악을 행하여 우리의 욕심을 이루고 있습니다(렘 3:4-5).  
그러면서도 우리는 수치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창녀의 낫"을 가졌기 때문입니다(3 절).

## 우리는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식구조가 너무나 빨리 변화되어가고 있습니다.  
변화되어가도 있되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눅 17:3).

## 우리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롬 12:21).  
우리는 악을 행하기보다 선을 행하므로 고난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벧전 3:17).  
비록 우리는 선을 행하나 상대방이 악으로 갚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외롭지만(시 35:12)  
우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살후 3:13).  
우리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화평을 추구해야 합니다(시 34:14).

## 우리는 어떠한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의 본보기입니까(고전 11:1) 아니면

악(우상숭배, 음행, 주님 시험, 원망)을 즐겨하는 자들의 본보기입니까?(10:5-11)

##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 것일까요?

자기 아내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게 만들어서

그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려했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 것일까요? (창 12:13)

##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과 짝지어 혼합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호 7:8),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는 우리들(9 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은 교만한 우리들(10 절),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지혜가 없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우리들(11 절),

이렇게 범죄하는 우리들을 그래도 건져주려고 하시는 하나님(13 절),

우리들을 힘있게 하시는 하나님(15 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우리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크신 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시 106:7).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잊어버렸습니다(51:12).

우리는 첫 사랑을 버렸습니다(계 2:4).

우리는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어버렸습니다(시 106:13).

오히려 우리는 욕심을 내어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14 절).

그 결과 우리의 영혼은 쇠약하게 되었습니다(15 절).

결국에 가서 우리는 구원자 하나님까지 잊어버렸습니다(21 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다(45 절).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옵소서'(4 절).

## 우리는 자만해서는 아니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니이다"라고 말한 사도 베드로(마 26:35),

결국 그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70, 72, 74 절).

그리고 그는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습니다(75 절).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믿어서는 아니됩니다.

우리는 자신만만해 해서는 아니됩니다. 우리는 자만해서는 아니됩니다.

우리는 철철히 무너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만은 철철히 깨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철철히 미워할 필요까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철철히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주님 만을 의지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주님 만을 신뢰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 우리는 죄를 은밀히, 하나님은 지혜를 은밀히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은밀히"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은밀한 죄를 책망하시사  
우리에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십니다(시 51:6).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밀히 가르치시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제 생각에는 두 가지라 생각합니다:

1. 주님께서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신다는 것(6 절)
2.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라는 것(17 절).

##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도 익숙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에만 익숙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도 익숙해야 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익숙해야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시 22:4).

하나님을 신뢰하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고(시 77:1)

반드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출 22:23).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시 3:4, 86:7, 120:1).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고전 15:57).

##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 [로마서 8장 12-17절 말씀 묵상]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을 보십시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란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육신을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4, 5절).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부터는

우리는 “영을 따르는 자”들, 즉 성령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4, 5절).

즉, 우리는 성령님을 따르는 자들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인도자이십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은(시 23:1) 우리의 성령님이시요

성령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설만한 물 가로 인도하십니다(2절).

또한 성령님은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4절).

인도하시되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감동시키시므로 인도하십니다.

성령님께서서는 바울을 인도해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서는 바울로 하여금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행 16:6),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지만 “예수의 영”(성령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였습니다(7절).

그렇지만 성령님은 바울은 마게도냐로, 유럽으로 인도하셨습니다(9-12절).

이렇게 바울을 인도하신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롬 8:14).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의의 길로, 천국으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습시다.

로마서 8장 15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더 이상 종의 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면 아니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인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님께서 그리하셨습니다(막 14:36).  
아빠 아버지를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간구하셨습니다(36 절).  
우리도 “아빠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써 또한 “상속자”입니다(롬 8:17).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입니다(17 절).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17 절).

[원로 목사님의 금요기도회 설교를 요약한 것입니다.]

##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어제 한국 KBS 저녁 9시 뉴스를 보면서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 목도 00 교회에서 담임 목사 지지파와 반대파와 분쟁 가운데  
어느 한 파가 쇠사슬로 잠긴 예배당 문을 여러 사람들이  
긴 통나무 같은 것으로 부스러 트리려고 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의를 행하는 우리들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습니다(시 119:6).  
우리는 판단력을 상실했습니다(7 절). 지금 우리는 정직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7 절).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불의를 버려야 합니다(3 절).  
교회 안에서 모든 악은 제거되어야 합니다.  
신부된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신랑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엡 5:27).

## 우리들의 존재 가치는 ...

무가치했던 우리들의 존재 가치는  
우리의 행함의 열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존귀하신 예수님의 행하심의 열매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오직 주님만 자랑할 수 밖에 없어야 합니다(고전 1:31, 3:21).

##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은 ...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은  
우리에게 분노하여 우리를 비웃으며,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욕하며,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치고 우리를 요란하게 하려고  
악한 의도로 꾀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이 악한 의도를 눈치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들의 꾀함을 패하실 것입니다(느 4:1, 4, 8, 15).

## 우리를 막아 범죄치 않게 하시는 하나님

온전한 마음으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그의 누이인 줄 알고  
사람을 보내어 데려왔지만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한 그랄 왕 아비멜렉을  
하나님께서 막아 그로하여금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게 하셨습니다(창 20:1-6).  
하나님께서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5 절) 행하는 자를  
막으시사 하나님께 범죄치 않게 하십니다.

## 우리를 지극히 미약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던 애굽 나라를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겔 29:14, 15). 그 이유는 2 가지로 요약 할 수가 있습니다:

1. 그 이유는 애굽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나타내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애굽이 교만하였기 때문에 그 나라를 지극히 미약하게 하셨습니다(29:3, 9; 30:6, 18; 31:10, 14).
2. 그 이유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고자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므로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하게 하셨으며 또한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을 바라보지 아니하게 하시므로 "그 죄악을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셨습니다(29:16).

주시는 교훈:

하나님께서 우리는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나 사람을 지극히 미약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그 것이나 그 사람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 의지케 만드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하시는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기억지 아니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자 우리가 하나님 보다 더 의지하던 것이나 사람을 지극히

미약하게 만드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만할 때 우리를 지극히 미약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는 낮아지게 하십니다(30:6).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히 하나님 만 의지하게 만드십니다.

##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독생자 예수님이 상함을 받으시길 원하실 정도로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사 53:10).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기뻐하실 정도로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길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10, 12 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의 못박혀 죽으시는 것을 만족히 여기실 정도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길 원하셨고 기뻐하셨으며 만족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11 절).

## 우리만 모르고 있으니 ...

불신자들조차도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 자신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으니 ... (렘 40:3)

##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명령을 상기시켜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서는 불순종하는 요나에게

불신자 선장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 (1:2), "자는 자여 어찌함이나 일어나서 ..." (1:6)].

우리 하나님은 불신자(들)를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명령(말씀)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고후 4:7).

## 우리에게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스 10:2).  
주님의 교훈을 따르며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3 절)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되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 즉 끊어 버려야 할 것들을 끊어 버려야 합니다(11, 12 절).

## 우리의 거룩은 ...

우리의 거룩은 평강을 이루는데 필요한 조건입니다(빌 4:6-9)(주석).

## 우리의 교만함과 결과?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교만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없는  
최악된 일을 우리 가운데서 행하면서도  
우리는 오히려 교만하여 지금 우리가 범하고 있는 최악을  
통한히 여기고 있지도 않습니다(고전 5:1-2).

## 우리의 더러운 몸과 마음을 드리는 것?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더러운 몸과 마음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요,  
하나님의 예배를 경멸히 여기는 것이요,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것입니다(말 1:6-8).

## 우리의 마음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적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여러번 시험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종 갈렙의 마음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야 합니다  
(민 14:11, 22-24).

## 우리의 마음을 돌리게 만드는 사람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데서 우리 마음을 돌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게 만드는  
하나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신 불신자들과 통혼하지 말고  
그들도 우리와 통혼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왕상 11:1-10).



## 우리의 마음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여 우리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으로 우리의 마음을  
흡족게 하시며 만족해 하실 것입니다  
(렘 31:13-14).

##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만족케 하는 사랑

우리의 마음은 이 세상의 어떠한 사랑으로도 충분히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오직 주님의 영원한 사랑으로만이 온전히 만족 할 수 있습니다(시 90:14).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전 3:11).  
영원을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은 오직 주님의 영원한 사랑으로만이 만족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우리의 만족은 오직 ...

우리 스스로에게서 난 만족은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금 불만족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납니다.  
(고후 3:5)

##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판에 새기고 지켜 행하는 지혜로운 자는  
그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의뢰(신뢰)합니다(잠 3:5-6).  
여기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말은 “독점적인 신뢰”를 말합니다.  
이런 의뢰심을 가리켜 “동심의 신뢰(Childish confidence)”라고 합니다(박윤선).  
마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믿되 단순성 있는 신뢰심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바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입니다(박윤선).  
이러한 동심의 신뢰로 하나님을 의뢰하기 위해선  
우리는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면 할 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마음으로 의뢰할 수가 없습니다.

## 우리의 미련함

우리 사람들의 미련함은  
우리가 잘못해 놓고  
그 결과로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잠 19:3).

## 우리의 믿음을 위해

항상 우리를 위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우리의 기도를 더디 응답하시기도 하십니다  
(요 11:6, 15).

## 우리의 복을 저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를 내려 우리의 복을 저주하실 것입니다(말 2:2).

## 우리의 불순종함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서는 불순종하는 요나를 통해서도 능력을 나타내시사  
불신자 선장과 사공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며(욘 1:14),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시며(14 절)  
또한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게 하셨습니다(16 절).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순종함도 사용하셔서 영혼을 구원케 하십니다!

## 우리의 사랑은 ...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습니다 (호 6:4).

## 우리의 생각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 자신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지금 내 자신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 지금 내가 이런 저런 걱정과 염려하는 생각을 하고 있던지,  
또는 미래에 대한 불안한 생각들을 하고 있던지 하면  
지금 나의 영적 상태는 연약함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참고: 시 77:7-10).

## 우리의 슬픔은 소망이 있는 슬픔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는(죽은) 분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충분히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 우리들의 슬픔은 소망이 있는 슬픔입니다.

그 소망이란 바로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오신다는 소망입니다(살전 4:13-14).

## 우리의 신뢰의 대상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신뢰할 만한 근거가 하나도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근거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시 62:1, 5).

##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도 ...

사울은 스테반이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겼고(행 8:1)

헤롯 왕은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였고 사도 베드로까지 옥에 가두었습니다(12:2, 4).

더 강해진 대적자들: 사울에서 헤롯 왕으로.

더 중요한 사람들(?): 스테반에서 야고보(와 베드로)로.

스테반이 죽음으로 시작된 "큰 박해"가 더욱더 커진 것 같습니다(8:1).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도 점점 더 큰 어려움과 박해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들은 점점 더 강한 사람들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더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들이

대적자들로 인해 생명을 잃던지

더 큰 박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우리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선 ...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선  
물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해야 하지만  
우리의 책임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우리의 행실을 삼가해야 합니다(잠 19:16).

## 우리의 우선순위, 하나님의 우선순위

우리는 하나님께 병 낫기를 간구하는데  
하나님께서서는 먼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길 원하십니다  
(눅 5:17-20).

## 우리의 자랑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히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고후 1:12).

## 우리의 죄가 많을 때

우리의 죄가 많을 때  
우리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우리의 원수들이 형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곤고해집니다.  
(애 1:5)

## 우리의 칭찬 기준은 매우 낮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칭찬 기준은 매우 낮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는 사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는 사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 주는 사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죄인들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 것도 바라지 않고 꾸어 주는 사람을 칭찬하십니다.

또한 주님은 은혜도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는 자를 칭찬하십니다(눅 6:32-35).

##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에게 명령하셨지만 우리는 불행의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신 10:13).

##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

뉴스를 통해서 법정 판결이 "사형"이란 소식을 들으면

우리는 그 사형수에 대하여 사형 받을 만한 죄를 범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이 사형을 당하는 것이

자기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마땅히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신성모독 죄와 성전모독 죄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마땅히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죄 없으신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사 53:5).

## 우매한 자들, 지혜로운 자들

우매한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헌금을 드립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함부로 입을 열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많이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실수라도 변명하면서 갚지 않습니다.  
그들은 걱정이 많고 꿈도 많으며 헛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말을 적게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반드시 갚습니다  
(전 5:1-7).

## 원망의 눈물

원망의 눈물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민 11:4, 10, 13, 20).

## 원망의 소리도

우리의 원망의 소리(기도)도 들으시사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  
(출 16:9)

## 원수까지도 사랑?

요셉은 그의 나이 39 살 때

(30 살 때 애굽의 총리 + 7 년 풍년 + 2 년째 흉년 때 형들에게

자기 자신이 요셉임을 밝히고 하나님의 뜻을 말함 = 39 살)

자기 형제들에게 자기가 요셉임을 밝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자기를 그들보다 앞서 애굽에 보내셨는지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였습니다:

"...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

"...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 (창 45:5, 7).

그리고 요셉은 그의 나이 110 세에 죽을 때까지(50:22)

자그만치 71 년 동안

자기를 미워하여 죽이려고까지 했다가 자기를 판 형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기릅니다(21 절).

저는 이 요셉의 삶과 죽음을 생각할 때

진정한 요셉이 되시는 예수님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죄인들(롬 5:8, 10)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계명인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마 5:44).

비록 저의 본능은 나의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것이요 복수하는 것이지만

내 안에 거하시사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저)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빌 2:13)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기원합니다.



## 원인은 마음에 탐욕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에서 놀라운 진리를 보던 우리의 눈을 돌이켜  
헛된 것을 보는 이유는  
주님의 말씀을 향하던 우리 마음이  
지금 탐욕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 119:18, 36-37).

## 원하는 선택이 없는 선택목록이 나에게 주어진 이유는 ...

나에게 주어진 선택할 목록들이  
결코 내가 원하는 선택 또는 옵션(option)이 없다는 것은  
나의 죄의 결과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삼하 24:13).

## 위급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육신의 눈으로 너무나도 잘 보이는 위급한 상황에서  
우리 마음의 두려움(삼상 13:6-7)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의지하므로(히 12:2)  
구원(건짐)의 확신으로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상황의 위급함 속에 휘말려  
믿음으로 행하기보다 상황에 이끌림을 받아 행하므로  
하나님께 죄를 범할 수 밖에 없습니다(삼상 13:8-14).

## 위기 상황에서도 감사 기도?

사람의 눈으로 보기엔  
아무리 심히 애써도 소망이 없어보이는  
위태로운 위기의 상황에 처해있다 할지라도  
안심하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신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행 27:9-37).

## 위기 속으로 들어가는 상황이라 할찌라도 ...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충분히 위기 속으로 들어가는 상황이라 할찌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그 위기 같아 보이는 상황은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열왕기상 18 장).

## 위기는 ...

위기는 하나님의 법도를 배우는 좋은 기회입니다(시 94:12).  
우리가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이끌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13 절).  
하나님께서서는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붙들어 주십니다(18 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생각이 많을 때에  
우리를 위안해주시사 우리의 영혼을 즐겁게 해 주십니다(19 절).

## 위기란?

우리 삶 속에 위기란 적어도 두 가지를 깨닫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란 첫째로 우리는 위기를 통해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위기에서 건질 수 없다는 사실과  
둘째로 건지심(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욘 2:9, 현대인의 성경).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위기 가운데 이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위기란 진정 하나님의 건지심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위기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건지심)의 사랑을  
더 많이, 더 깊게, 더 넓게, 더 높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엡 3:18-19).

## 위기를 통하여 우리를 높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위기 가운데서 높이시되(단 2 장, 특히 48-49 절)  
더욱 높이십니다(3 장, 특히 30 절).

## 위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대하는 위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다를 수 있습니다(렘 46:28).

## 위로는 견디게 합니다.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위로는  
능히 고난을 견디게 합니다(고후 1:3-6).

## 위로를 거절할 수 밖에 없을 때에

우리가 슬픔 속에서 통곡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위로를 거절할 때에  
하나님께서서는 장래의 구원의 소망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렘 31:15-17).

##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 주소서

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게 하소서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 주소서(눅 24:45-49).

## 위로하는 은사?

주님께서 나에게 위로하는 은사를 주신 듯 하다(롬 12:8).

## 위선과 위선자

마음으로는 그 사람을 미워하면서도 겉으로는 친절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위선입니다.  
위선자는 상대방을 향하여 악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도  
입술로는 매끄러운 말을 하고 상대방의 비위를 맞추되  
자기의 악한 마음을 매우 따뜻한(열렬한) 사랑의 말로 가장합니다(잠 26:23).

## 위선을 미워하다 보면 그릇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위선자의 위선을 미워하다 보면

그 위선자의 입에서 나오는 옳은 말조차도 듣기 싫어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서는 외식하는 바리새인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아야 하지만

그가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라 고 말씀하셨는데도 말입니다(마 23:3).

그 결과 우리는 위선자의 옳지 않은 행동과 옳은 말을 구분하지 못하므로

판단력의 균형을 잃어서 그릇된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합니다.

지혜롭게 구분해서 우리는 위선자의 위선은 미워하여 그의 행동은 본받지 말아야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오는 옳은 말은 듣고 지켜 행해야 합니다.

## 위선자라 할찌라도 ...

우리의 부모님(목사님, 선생님)이 위선자라 할찌라도

우리 자녀들(성도, 학생)은 그 분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아야 하지만

그 분들이 하시는 올바른 말씀은 행하고 지켜야 합니다(마 23:3).

## 위선적인 아침의 기도와 눈물?

어떠한 방법으로든 상대방을 향한 자신의 미운 감정은 표출이 될 수 밖에 없을텐데도 불구하고

그 감정을 아침하는 말로 숨기는 사람은 참으로 무서운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의 미운 감정을 눈물까지 흘리면서 숨길 수 있는 사람은

매우 위험한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위선자의 아침의 말과 눈물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위선적인 아침의 기도와 눈물에

우리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참고: 잠 26:25)

## 유부녀와 동침했습니다.

유부녀와 동침했습니다.  
그녀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임신한 아기가 자기의 아기가 아님을  
덮으려고 그녀의 남편으로 하여금  
그의 아내와 동침하게 하려고  
두 번이나 시도했습니다.  
심지어 그로 하여금 술취하게 만들어서라  
집으로 가서 자기 아내와 동침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결국 그를 죽이기로 계획까지 하게 되었고 그를 죽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삼하 11:5-27).

## '유익을 구하는 자' 아니면 "거치는 자"?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되어 합니다.  
그 목적은 그들로 구원 받게 하는 것입니다  
(고전 10:32-33).

## 유익한 근심

솔로몬 왕은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전 7:3).

우리 얼굴에는 근심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얼굴에 근심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좋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우리 마음이 좋게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경건한 근심함이야 말로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므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에게 웃음과 기쁨을 주기 때문입니다.

즉, 경건한 근심이야 말로 우리의 죄가 사함 받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은총을 누리게 하기 때문에

우리 얼굴에 근심함은 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슬픔 때나 기쁨 때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주권적인 뜻 가운데서 허락하신 슬픔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할 수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울 때나 웃을 때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아름답게 하십니다.

## “육신에 있는 자들”은 ...

"육신에 있는 자들"은(롬 8:8)

"육신을 따르는 자"들이며 또한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5 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6 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7 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7 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8 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13 절).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5 절).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5 절).

우리는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갈 5:22-23).

우리는 성령님을 따르는 자들로서 육신의 따르고,

육신의 일을 생각하면 불편하고 괴로워해야 하는데 ...

[원로 목사님의 수요 설교 요약]



## 육신의 일들 vs. 성령님의 일들을 생각?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성령)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롬 8:5).

### 1. 육신을 따르는 자들이 생각하는 육신의 일들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갈 5:19-21)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마 15:19)

### 2. 성령님을 따르는 자들이 생각하는 성령님의 일들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갈 5:22-23).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 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 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빌 4:8).

## 육신의 지배를 받았을 때와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전에 우리가 육신의 지배를 받을 때에는  
율법에 의해 일어난  
죄의 욕망(the sinful passion) 또는 악한 욕망(evil desires)이  
우리 안에 작용하여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롬 6:12; 7:5, 현대인의 성경).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므로  
성령님으로 살면서 또한 성령님으로 행합니다(갈 5:25).  
이제 우리는 성령님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롬 7:6).  
이제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되었습니다(6:4).

우리가 육신의 지배를 받고 있었을 때에는  
육체의 욕망을 따라 육체를 일을 했습니다(갈 5:19).  
그 육체의 일이란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과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19-21 절).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므로(22 절, 현대인의 성경)  
성령님이 원하시는데로 육체의 욕망과 정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17 절, 현대인의 성경).  
이제 우리는 성령님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 성령님의 열매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22-23 절).

## 으뜸되기를 좋아하지 마십시오.

으뜸되기를 좋아하지 마십시오 (요삼 1:9).

교회 지도자들을 악한 말로 비방하지 마십시오(10 절).

교회 형제들을 맞아들이지 아니하는 것을 하지 마십시오(10 절).

교회 형제들을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들을 금하지 마십시오(10 절).

악한 것을 본받지 마십시오(11 절).

## 은혜?

은혜를 싸구려고 만드는 자의 마음에는

불만족이 있고 그의 입술에는 불평이 있으며

그의 행함에는 불순종이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진정으로 알아가는 자의 마음에는

감사가 있고 그의 삶에는 수고가 많습니다

(딤후 1:12; 고전 15:10).

## 은혜로 여길 수 있어야 할텐데 ...

의인이 나를 책망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거절하지 말고

오히려

의인의 책망을 은혜로 여겨야 한다

(시 141:5).

## 은혜를 베풀라고 은혜를 입게 하시는 주님

지금 주님은 나에게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마 22:39)

하필이면 그 이웃이 내가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있습니다(욘 1:2).

그런데 주님께서는 불순종하는 나 같은 죄인에게도

나랑 함께 있는 비신자(들)을 통해 은혜를 입게 하시사

나에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4-13 절).

그 목적은 주님은 나로 하여금 주님을 본받아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나는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나는 아직도 그 사람이 잘 안되기를 지켜 보고 있습니다(4:5).

(요나 1 장 13 절 말씀 중심으로 전에 목상한 "비신자들에게도 은혜를 입는 목사"라는 글을 영어로 번역하는 중에)

## 은혜를 보답하지 않는 자

모든 나라들의 눈에 존귀하게 되는 것,

부와 영광이 지극한 것,

결국 히스기야 왕의 마음을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교만한 그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보답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대하 32:23-27).

우리 마음이 교만해지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답해야겠다는 생각도 아예 앓(뒀)하는 것 같습니다.

교만한 자는 은혜를 망각하는 자!

##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소서.

환관장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그는 자기 목숨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환관장이 느부갓네살 왕의 말을 듣고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주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원한 채식과 물을 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단 1:8-16).

## 은혜의 보답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시 116:12)  
고민하지 않고 있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 은혜입니다.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받는 고난은 은혜입니다(빌 1:29).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7 절) 감사해야 합니다(3 절).

##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합니다.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합니다(잠 6:26).

그 악한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24 절).

우리 마음에 그녀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아야 합니다(25 절).

남의 아내를 만지지도 말고 통간하지 말아야 합니다(29 절).

그녀와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입니다.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32 절).

상함과 능력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됩니다(33 절).

그녀의 남편은 투기로 분노하여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34 절).

## 음식을 탐하면?

음식을 탐하여 먹고 배부르고 살찔 때

우리의 배만 살찌는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살이 찌서 우리는 교만해 집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께 범죄하게 됩니다

(잠 23:3, 6; 신 8:9, 12-14, 17; 31:20, 32:15).

## 음행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를 방종하게 하는

우리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해야 합니다

(민 15:39, 40).

## 의논을 해야

공동체 안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의논을 해야 합니다

(수 22:10ff.)

##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그리스도인은 ...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마 5:10).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그리스도인은 ...

1.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 것이 자신에 복인 줄 알고 있습니다(마 5:11).  
그러므로 그/녀는 박해를 받을 때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12 절).
2.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합니다(계 1:9).  
그/녀는 예수님처럼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웁니다(히 5:8).
3. 고난의 유익을 얻어 누립니다(시 119:71).  
그/녀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줄 압니다(벧전 3:17).  
그/녀는 고난을 통하여 그릇 행하던 길에서 돌이켜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시 119:67).
4. 현재의 고난과 족히 비교할 수 없는 장차 나타날 영광을 사모합니다(롬 8:18).  
그/녀는 하늘에서의 큰 상을 바라봅니다(마 5:12).  
그러므로 그/녀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을  
잠시 이 세상에서 최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합니다(히 11:25).

[Iain M. Duguid, "Hero of Heroes"란 책을 읽으면서]

## 의에 주리고 목마른 그리스도인은 ...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마 5:6).

의에 주리고 목마른 그리스도인은 ...

1. 오직 자신에게 전가된 예수님의 의만 의지합니다(롬 3:22).  
그/녀는 자기의 의는 마치 더러운 옷과 같다는 것을 인정합니다(사 64:6).
2.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마 6:33).
3.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행합니다.  
그/녀는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올바른 일을 행하면서 올바른 길을 걸어갑니다.
4. 선한 일을 행합니다(딤후 3:1).  
그/녀는 선한 일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창조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엡 2:10).
5.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서 명하신 말씀에 순종합니다(행 5:29).

(Iain M. Duguid, "Hero of Heroes"을 읽으면서)

## 의인과 악인의 환난?

의로우신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감찰하시고  
의인은 환난에서 건지시지만  
악인은 환난에 던지십니다  
(잠 21:12).



##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습니다.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아 회오리바람이 지나가도(잠 10:25)  
영영히 이동되지 않으며(30 절)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룹니다(28 절).

## 의인은 찬양하고 기뻐합니다.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합니다(잠 29:6 하).  
심지어 악인이 자기의 죄를 들춰내는(엡 5:11) 온전하고 정직한 의인을 미워하여(잠 29:10)  
그 의인에게 올무를 놓는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6 절상)  
그 의인은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찬양하며 즐거워합니다(6 절하).  
그 이유는 그 의인은 하나님께서 범죄하는 악인으로 하여금  
스스로 함정에 빠지게 하시므로(28:10)  
자기를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12:13 하).

##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영존하신 주님

오직 "영존"하신 주님이시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신 주님께서(히 1:11, 12)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아 (6 절)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신 것은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2:17)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가 없으신 것은(4:15).  
우리의 죄를 속량하려 하기 위한 것이며(2:17)  
또한 주님이 몸소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신 것은  
시험 당하는 우리를 능히 도우시기 위해서입니다(18 절).

##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기에 그리하고 싶지만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그들과 함께 이 땅에 좀 더 거하는 것이  
더 유익하기에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빌 1:22-25).

## 이 세상에서의 천국 생활

다가오는 세상(천국)에서 충만히 누리는 영원한 생명을  
이 세상에서 부분적으로 누리는 삶이란  
천국의 계명인 예수님의 이중 계명대로  
우리가 우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마 22:37, 39).  
우리가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요 15:9-12).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비칠 때에  
우리 마음 속에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다가오는 세상인 천국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새찬송가 293 장 "주의 사랑 비칠 때에", 1, 4 절).

## 이 세상의 소망이 다 끊어졌다 할지라도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진 상황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소망하(바라보)는 이유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은  
과거에도 우리를 큰 사망에서 건지셨고 또한 앞으로도 건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후 1:8-10).

##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교회에 일어난 이유는 ...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우리 교회에게 일어난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으며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되로 행하지 아니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으실 수 없으셨기 때문입니다(렘 44:22-23).

## 이 짧은 인생 ...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신 주님,  
주님에게는 천 년도 지나간 하루 같고 밤의 한 순간에 불과한데,  
강건하여 100 세를 산다한들 모든 날이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되  
이 짧은 인생  
결국에는 티끌로 돌아가니  
나는 하루하루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만족하며  
내 평생 즐겁고 기쁘게 살리라(시편 90 편).

## 이 패역한 세대에

참으로 패역한 세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써야 합니다  
(행 1:14, 2:40).

## 이것들을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것들을 피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이 아닌 다른 교훈,  
교만한 가운데서 변론과 언쟁,  
투기와 분쟁과 다툼과 비방과 악한 생각,  
불만족 속에서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과 돈 사랑과 탐심  
(딤후 6:3-11).

## 이것을 마음에 두고 오늘도 사십시다.

우리는  
모든 사람의 끝을  
마음에 두고  
하루 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전 7:2).

## 이것이 바로 용서의 비결입니다.

사람이 나에게 행한 악한 일들, 이 사실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  
그 와중에서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롬 8:28)  
우리는 우리에게 죄를 범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상대방에 우리에게 행한 잘못이나 죄악들만을 생각하면  
결코 상대방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잘못이나 죄악들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것들 가운데서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셨는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덧입게 됩니다.

[요셉 (창 50:19-21)]

##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시 69:29, 현대인의 성경)  
우리의 마음은 상하고 근심이 총만할 수 있습니다(20 절).  
그 때에 우리는 아무리 찾아도  
어느 누구에게도 동정과 위로를 받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20 절).

그러한 때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용기를 가지고(32 절, 현대인의 성경)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29-30 절).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31 절).

"나는 항상 희망을 가지고 더욱더 주를 찬양하겠습니다"(71:14).

## 이래서는 아니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던 자유인이  
"뜻이 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므로  
자기 자신을 다시 죄의 종 노릇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아니됩니다  
(렘 34:8-11; 롬 6:6).

## 이러한 가정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친 형제(자매)들이 나를 미워하고 시기합니다(창 37:8, 11).  
그들은 나를 속일 음모까지 꾸미고 있습니다(18 절, 현대인의 성경).  
결국 나는 그들로 말미암아 인생의 구덩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24 절).  
나는 그들로 말미암아 강제로 나를 특별히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어머니에게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게 되었습니다(3, 28, 36 절, 현대인의 성경).  
나는 아무 식구도 없는 먼 곳에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39 장).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2, 3, 21, 23 절).  
나는 이 임마누엘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고후 5:7).

## 이러한 겸손함이 있다면

모든 성도님들 중에  
나 자신이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는 사실을  
깨달고 인정할 수 있는 겸손함이 내게 있다면  
나는 나에게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측량할 수 없을 것입니다(엡 3:8).

## 이러한 기도를 죽기 전에 응답해 주시길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께  
부하게 해주시고 가난하게 하지 말아주시길  
간절히 기도하지  
잠언 기자 아굴처럼  
우리가 죽기 전에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다만 나에게 매일 필요한 양식을 주소서"라고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있지 않고 있는 것 같다.  
과연 우리는 잠언 기자 아굴처럼  
죽기 전에 이 기도를 허락해 주시길 간구할 정도로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기도인가? (잠 30:7-9).

## 이러한 믿음을 저에게도 주소서

임마누엘 믿음,  
담대한 믿음,  
승리하는 믿음,  
한결같은 믿음.

(여호수아와 갈렙을 생각하면서)

##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고난을  
이 세상의 모든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기는 믿음 ...  
(히 11:26).

## 이러한 성품을 추구하고 싶습니다.

죄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는

허물이 없는 성품을 추구하는데 헌신하고 싶습니다.

(시편 18:23, Mark D. Futato in "CORNERSTONE BIBLICAL COMMENTARY")

##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별세 신앙

(죽음의 관점을 가지고 신앙생활)

종말 신앙

(주님의 재림의 관점을 가지고 신앙생활)

천국 신앙

(영원한 관점을 가지고 신앙생활)

## 이러한 자를 동반자로 삼아야 합니다.

당신 앞에 속이는 자들과 거짓말쟁이들을

두지 마십시오.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들을 찾아

당신의 동반자로 삼으십시오

(시 101:6-7).



## 이러한 자에게도 사명을 주시는 주님

"어부"였던 사도 베드로(마 4:18),  
예수님께서 그를 삼년간 데리고 다니시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고자 '제자훈련' (?)을 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삼년간 제자훈련을 받았던 베드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빈 무덤(요 20:6-7)과  
제자들 가운데 두 번이나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19-29 절)  
"나는 물고기 잡으로 가노라"하고 다시금 본업인 어부로 돌아갔습니다(21:3).  
이러한 사람에게도 예수님께서 세 번째 나타나서(14 절)  
세 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내 양을 치라"(15-17 절).

## 이러한 자에게도 은혜를 베풀어야 ...

선을 악으로 갚는 자에게도  
은혜를 베푸는 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삼하 2:4-6)  
어떻게 우리에게 악을 행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신 목적을 깨닫게 될 때 가능합니다(창 50:20-21).

## 이러한 젊은 과부가 되어서는 아니됩니다.

이러한 젊은 과부가 되어서는 아니됩니다: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자, 처음 믿음을 저버린 자, 게으름에 익숙한 자,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는 자.  
그녀는 사탄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아야 합니다(딤후 5:11-14).

## 이러한 젊은 과부는 경계해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정욕적이고 게으르며  
마땅히 아니할 쓸데없는 말(헌담)을 하며  
남의 일에 끼어들어 일만 만드는  
젊은 과부는 경계해야 합니다  
(딤후 5:11-13).

## 이런 사람도 부르시고 빛으시사 ...

소극적이고 비관적이며  
의심이 많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인데  
이런 사람도 부르시고 빛으시사  
담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주님의 일꾼으로 세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사기 6-7 장에 나오는 기드온이란 인물을 생각하면서)

## 이런 사람들을 알아줘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족한 것을  
들춰내기 보다 채워주는 사람과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하기 보다 시원하게 하는 사람을  
알아줘야 합니다(고전 16:17-18).

##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받는 재앙이 심히 무거울 때  
우리에게는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욘 23:1-2).  
그 때에 우리는 우리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6 절)을 간절히 찾으면서  
하나님께 호소하며 변론도 할 수 있습니다(3-4, 7 절).  
그럼 후 우리는 하나님의 답변을 듣고 싶어합니다 (5 절).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답변을 들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6, 8-9 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택하여 걸어가는 길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우리를 순금같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10 절).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바로 걸으면서 치우치지 않습니다(11 절).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습니다(12 절).  
우리는 이렇게 고백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반드시 그것을 행하십니다(13 절).  
그런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작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14 절).

## 이로써 사랑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음을 믿기에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영생이 우리 속에 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요일 3:15-16).

## 이미 & 아직도 죄에서 자유를 ...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미 죄 사함을 받고(시 103:2,3) 이미 죄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롬 6:7).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7:19, 현대인의 성경).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법을 따르고 있지만 우리 육신은 죄의 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25 절, 현대인의 성경).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악하여(마 26:41) 우리는 시험에 들어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온전히 죄에서 자유를 얻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다시오시는 그 날, 우리는 "영광의 자유"에 이를 것입니다(롬 8:21).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실 것입니다(엡 5:27).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26 절).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책임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책임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벧전 1:22).

우리의 책임은 예수님의 이중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마 22:37, 39).

우리는 이 책임을 감당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가능케 하실 수 있으십니다(빌 2:13).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므로(갈 5:22-23)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이중계명을 지켜 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 이미 용서하셨는데 ...

하나님께서서는  
이미 회개한 나를 용서하시고  
나의 죄를 잊고 계신데  
나는  
여껏껏 죄책감을 가지고  
내 마음에 평강이 없이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

(Wayne Stiles 의 "WAITING on GOD"이란 책에서 창세기 50 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요셉의 형들을  
생각할 때)

## 이미 죽으셨지만 지금도 ...

"...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느니라"(히 11:4).  
믿음의 사람 아벨은 이미 죽었지만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4 절).  
그는 자기 친형 가인에게 쳐죽임을 당했지만(창 4:8)  
"믿음으로 ...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습니다(히 11:4).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은(12:2)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들까지도 그분을 영접하지 않"고(요 1:11, 현대인의 성경)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아 죽였습니다(눅 23:18, 21, 23).  
비록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지금도 그분의 복음은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장인 어르신은 이미 죽으셨지만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  
(히 11:4).

## 이상합니다.

이상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항상 "예"만 해야 하는데(고후 1:19)

많은 때에 "아니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웃에게 "아니오"해야 할 때도 많은데

그 때에 우리는 "아니오"라 말하지 못하고 "예"하고 있습니다.

"예"해야 할 주님께는 "예" 하지 않고

오히려 "아니오"할 이웃에게 "예"하고 있으니 이상합니다.

##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이신 예수님이

상종하지도 않는 "사마리아 여자인"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까(요 4:9).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이신 예수님께서 상종하지 말아야 할

그 사마리아 여인과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습니다(27 절).

## 이웃을 견책해야 하는데 ...

만일 우리가 형제/자매를

마음으로 미워하는 죄를 계속 지고 있는

우리의 이웃을 견책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 이웃에 대하여

죄를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레 19:17).

## 이웃을 멸시하며 망하게 하는 ...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고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합니다  
(잠 11:9, 12).

## 이적과 기사를 보이는 거짓 목사?

사탄은 거짓 목사들로 하여금  
이적과 기사를 이루어지게하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서 꺾어내어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참고: 신 13:1-5).

## 이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잠시 동안만이라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얼마를 남겨두시며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조금 소생하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래도 여전히  
주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있으니  
이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스 9:8-10).

## 이해가 안되는 주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

우리의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주님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그 명령에 순종할 때  
그 결과는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유익이 될 것입니다.  
(렘 40:9).

##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내 명철로 이해가 안되지만  
나는 오히려 그것이 다행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정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 일들이 내 명철로 이해가 된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기 보다  
나 자신의 명철을 의지할 것입니다  
(잠 3:5-6).

##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는 주님은  
결국에는 우리를 그 그물에서 끌어내시사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시 66:11, 12).



## 인간관계에 필수적인 마음

인간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선  
너그러운 마음과  
베풀기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  
(잠 19:6)

## 인간의 지혜로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성취

번성하고 매우 강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애굽 왕은 애굽 사람들보다 많고 강하다고 생각하여  
그들이 더 많아지면 전쟁이 일어날 때  
애굽 사람들의 대적과 함하여 자기들과 싸우고  
애굽 땅에서 나갈까봐 지혜롭게 한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는 것과 그들을 학대하는 것과  
히브리 산파 두 명으로 하여금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아들이면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갔습니다(출애굽기 1 장).

과연 인간이 지혜롭게 행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 인간의 헛된 지혜조차도 ...

애굽 왕이 지혜롭게 하자고 한 것이 번성하고 매우 강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확대하되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하고 어려운 노동을 하게하므로 그들을 괴롭게 한 것입니다 (출 1:7, 10, 11, 12,14).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의 헛된 지혜도 사용하시사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부르짖게 하셨습니다(2:23).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24 절).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그들을 기억하셨습니다(25 절).

괴로울 때 주님께 부르짖으므로

주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아 고통 가운데서 건짐을 받길 기원합니다.

인간의 헛된 지혜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지혜 안에 있습니다.

## 인생은 ...

1. 인생은 다시 흠으로 돌아가기에 허무합니다.

시편 90 편 3 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2. 인생은 잠깐이기에 허무합니다.

시편 90 편 4-6 절을 보십시오: “주의 목전에는 천 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벤바 되어 마르나이다”.

3. 인생은 일평생 수고와 슬픔 뿐이기에 허무합니다.

시편 90 편 10 절을 보십시오: “우리의 년 수가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라도 그 년 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 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 인생의 흥년

인생의 흥년으로 말미암아  
재물을 잃는 것이  
소중한 생명을 잃는 것보다 낫습니다.

인생의 흥년 가운데에 있을 때  
재물을 지키려다가  
사랑하는 사람의 목숨까지 잃어서는 아니됩니다.

풍부한 재물이 있는 가운데서는 필요성을 못느꼈던 하나님의 돌보심을  
소중한 생명을 잃고 나서야 들리나 봅니다(룻 1:1-6).

## 인식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깊은 속에 있는 미운 감정을 들춰내주실 때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인식하고 인정해야 합니다(잠 26:26).  
하나님께서 회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기원합니다.

## 일 혹은 기다림?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잠잠히 기다리길 원하고 계십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시 27:14).

## "일용할 것"만 누리는 절제된 삶?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도 들으시사  
그들을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 같이 내리"셨을 때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라고 명하셨습니다.  
비 같이 내려주신 많고 많은 양식 중에  
일용할 것만 날마다 거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시험이었을까요?  
(출 16:2-5).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영적인 축복들을 베풀어 주셨는데(엡 1:3)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축복들 중에  
하루 하루 그 날에 필요한 축복만 누리라는 시험 문제를 내셨다면  
과연 우리는 하루 하루 "일용할 것"만 누리는  
절제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백화점에 쇼핑하러 갔는데  
지갑에 돈이 많고 신용카드를 마음껏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사가지고 나올 수 있을까요? 하하

## 일천 번제 드리면서

### 1000 명의 여자로 인해 우상 숭배하면 뭐합니까?

하나님께 번제물을

1,000 마리("일천 번제")를 드리면 뭐합니까?

(왕상 3:4; 대하 1:6)

여자를 1,000 명(700 명의 아내와 300 명의 첩)을 거느리면서

그녀들로 인해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나

결국에 가서는 그녀들의 꼬임에 빠져

이방 신까지 섬겼으니 말입니다

(왕상 11:3-4, 현대인의 성경)

1,000 마리 번제물을 하나님께 받치면서

1,000 명의 여자들에게 마음을 뺏겨

우상 숭배를 하므로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 1:13).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1,000 마리 번제물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11 절),

'나는 기뻐하지 아니하노라'(11 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예배당만 났을 뿐이니라'(12 절),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13 절),

'내가 가증히 여기노라'(13 절),

'내 마음이 싫어한다'(14 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14 절),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15 절).

## 입술로는 그러나 마음은

자칭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났으면  
하나님의 모든 계시가 우리에게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을 가르침을 받았을 뿐입니다  
(사 29:11-13).

## 잊어버림

혹시나 어머니가 나를 잊어버리신다 할지라도,  
어쩌면 내가 내 자신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치매),  
내 주님은 결코 나를 잊어버리지 않으실 것이기에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사 49:15).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니 슬픈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새찬송가 438 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1 절과 후렴).